

벼이 리 바 비나 는 바 닷

사연(수기)

2019 청림콘텐츠 공모전 수상작품집



올해 반부패·청렴 수기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을 모아 책자로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반부패·청렴 수기를 비롯한 각종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해왔습니다.

올해로 5회째 접어든 이번 공모전에서는 학교, 직장, 가정 등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한 청렴 및 양심과 관련한 사연을 공모하였으며, 그 결과 학생부터 직장인, 주부 및 은퇴하신 분들까지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청렴이 자신과는 멀게 느껴질 수 있는 다소 어려운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약 900편의 다채로운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청렴에 대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간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적인 반부패·청렴 정책을 추진하여 우리 사회의 문화와 관행을 바꾸고 제도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2년여 동안 반부패정책협의회의 복원,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발족, 생활적폐대책협의회 운영, 공공재정환수법 제정 및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의 도입 등 반부패·공정성 향상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는 2년 연속 상승하였고, '18년도에는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더욱 더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민들의 참여와 공감, 시민사회를 비롯한 사회각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더 깨끗하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청렴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실천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사명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청렴 수기 공모전에 참여하여 소중한 경험을 나누고 재능을 발휘해주신 모든 분들의 열정과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수기는 우리 사회를 더 환하게 밝혀주는 등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작품집에는 수상작으로 선정된 수기 16편의 작품을 수록하였습니다. 입상하신 수상자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이 작품집을 통해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청렴'의 아름다운 가치를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 은 정

CONTENTS

2019 청렴콘텐츠 공모전 수상작품집

심사평

이승하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006
김현탁 [한국현대문학연구소 소장]	008
김명희 [한국소설가협회 사무국장]	010



사연수기

대상	[공직부문] 별이 빛나는 밤	014
최우수상	[일반부문] 고요한 밤 거룩한 밤	022
우수상	[일반부문] 두 어르신의 사과	029
	[공직부문] 문득은 아련이 되어	036
	[일반부문] 청렴한 복지의 시작	043
장려상	[공직부문] 꿈과 꿈의 경계선에서 청렴을 생각하다	050
	[공직부문] 아버지의 길	056
	[일반부문] 할머니의 낡은 팔찌	064
	[공직부문] 제도의 변화가 일으키는 청렴문화	071
	[공직부문] 공짜를 버려야 내가 산다	078
입선	[공직부문] 아버지의 소	085
	[일반부문] 정의로운 한판승	092
	[공직부문]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100
	[일반부문] 양말 한 켤레의 은밀한 이야기	106
	[일반부문] 내가 겪은 최악의 부정부패	114
	[일반부문] 양심이 곧 청렴이다	122

심사평

이승하(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주제적합성 30점, 참신성 30점, 완성도 20점, 활용도 20점의 기준에 맞춰 채점을 했다. 자화자찬이 지나치거나 청렴에 대해 상식적인 이야기를 늘어놓거나 문장의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감점을 했다. 왜 우리가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지, 내가 그간 한 일에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설득력 있게 전개한 글에 좋은 점수를 주었다.

그 결과 정선 카지노에서 플로어 퍼슨으로 일하면서 콤프(카지노에서 제공하는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않은 연유를 쓴 글인 '별이 빛나는 밤에'가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암에 걸려 임종을 앞둔 아버지가 자식이 일하는 것이 보고 싶어서 정선의 호텔에 묵게 되었을 때 선배와 동료는 콤프를 사용하라고 권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행위의 부정직함을 지적해서 사비로 처리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본인을 살리게 되었다. 이야기 전개 과정이 소설처럼 극적이라 재미도 있지만 문장도 차분하고 논리도 정연하다.

최우수작으로 뽑힌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은 대학 패션디자인학과를 나와 침구회사에 들어갔다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퇴사하기까지의 과정을 쓴 글이다. 부정을 사주하는 과장에게 맞서서 양심적으로 일처리를 했다가 과장이 회사를 쫓겨나자 동료들이 따돌려 그만 회사에 사표를 내고 나오는 이야기다. 직장은 없었지만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기에 거룩하고 고요한 밤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우수작 '두 어른신의 사고'는 군복무를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신하고 나온 분의 글이다. 해외에 수출품을 실어 나르는 선박에서 일하면서 연료유를 현지인들에게 몰래 팔아서 선원들의 용돈을 충당하는 관행을 놓고 기관장과 기관사가 충돌하는 현장을 목격하게 된다. 뒤에 회사에 투서가 들어가서 선장과 기관장은 핍박했던 기관사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데 그 과정을 차분히 써 우수작으로 뽑혔다.

우수작 '청렴한 복지의 시작'은 너무나도 기구한 사연이 담긴 자서전이다. 권투선수 출신 아버지의 폭력에 장기간 노출되어 있었지만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은 의지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아버지의 도박벽과 불륜도 모자라 언니가 자신에게 와야 할 기초생활수급비를 빼돌려 쓴다. 부정수급자인 언니를 보면서 '청렴한 복지의 시작'을 주장하는 이 글은 깊은 충격과 감동을 준다.

우수작 '문득은 아련이 되어'는 필자의 아버지 이야기다.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한 끝에 식품도소매업을 하게 된 아버지는 새벽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구입해 신뢰를 쌓아간다. 특히 주차권 문제가 불거졌을 때 주차권 제재를 따로 하게 한 것은 아버지의 정직함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된다. 주차권에도 청렴을 강조라는 문구를 넣고 부패·공익신고와 상담을 하는 곳의 대표전화를 넣은 것이다. 이런 아버지를 존경하는 필자가 면접 때 가장 존경하는 이가 누구냐는 질문에 당연히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심사평

김현탁 (한국현대문학연구소 소장)

최근들어 청렴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극대화 되어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공직자든 일반인이든 청렴의 모토는 부패되지 않는 인간의 본성을 지향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것은 나아가 사회 활동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 일과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순정품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느냐가 관건이다.

매년 청렴수기를 공모하여 보다 맑고 밝은 사회를 지향하고자 하는 일이 되풀이 되지만 비운 뒤 솟아나는 죽순처럼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오염이 싹들이 암암리에 솟아나는 현실이다. 그것은 끝없는 물욕과 금욕, 또 소위 말하는 ‘갯발’을 부리고 싶은 권위주의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수기가 비록 문학작품의 범주에 속하지 않을지라도 똑같은 문자로 표현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가슴에 와 닿는 표현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느끼는 감동이 문학작품보다 더 육화되어 읽는 이의 심금을 깊이 적셔야 한다.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표현되었든 비교 우위의 독특한 참신성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번에 응모한 공직부문 대상 작품 ‘별이 빛나는 밤’은 그야말로 문학성 짙은 표현과 언어를 다룰 줄 아는 기교가 수기 전체에 골고루 퍼져있었다. 마치 품격 있는 한 편의 수필을 보는듯한 정제된 어조와 비유가 잘 드러나 있었다. 또 최우수작인 ‘고요한 밤 거룩한 밤’도 대상작에 버금가는 문장력이 돋보였다. 다만 감성에 너무 매몰된 듯한 전개가 참신성을 잠식해버린 아쉬움이 있었다. 또 일반부문 우수상 작품 ‘두 어른의 사과’는 차분한 어조의 전개가 도드라지게 보였지만 비록, 사건이 다들지라도 이미지의 차용이 된 듯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어 안타까웠다.

그 외 입선한 작품들도 각자 독특한 경험을 기술 했지만 관습적인 후회와 반성, 일반적 표현, 전년도 입상작과 유사한 흐름 등이 조금씩 엿보였다.

청렴에 대한 수기작품의 궁극적 목적은 언행의 일치라고 볼 수 있다. 보여 주기 위한 일회성, 또는 분위기에 편승한 위선이 있다면 수기공모의 의미는 불필요하게 된다. 다수의 작품에서 드러난 ‘김영란 법’ 때문에 라는 말이 심사자의 눈에 거슬리는 것은 법과 상관없이 내 마음에서의 진정성이 얼마나 녹아있느냐를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본다면 청렴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심사평

김명희 (한국소설가협회 사무국장)

먼저, 의미가 큰 자리에 심사위원으로 불러주신 청렴연수원 관계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사하면서 내심 기뻛고 이 사회가 다소 안심 되었다. 제 몫을 다하지 못한 글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대다수 글이 완성도가 높았고 인상적이었다. 진솔한 체험을 통한 청렴정신에 동행하며 심사를 맡았던 내게도 의미 깊은 시간이었다.

심사해보니 응모작들은 두 부류로 나뉘었다. 일반적이고 표피에 갇힌 뻔한 청렴과, 삶의 벼랑까지 내려가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진솔하고 잔잔하게 들려주는 살아있는 청렴. 수상작 중 어떤 글에서는 청렴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자신의 가족까지 고발하고 옳지 못한 것을 바로잡고자 애쓴 아픈 고백도 있었다. 그 글을 읽을 때는 내 가슴도 아팠고 그 분의 손을 잡아드리고 싶었다. 부디 이제는 편해지셨길 바란다.

이 외에도 향기 진한 글들이 많았다. 마음 같아서는 보다 많은 분들의 작품을 손들어주고 싶었다. 청렴정신이란, 자칫 부패하기 쉬운 우리주변을 청결하게 소독하고 환기해주는 정신의 살균제가 아닐까. 오늘도 변질된 유혹과 암흑의 먹잇감이 우리에게 무수히 던져지고 있을 터이다.

단단한 수상작들이 세상으로 많이 나가, 경종이 되고 좀 더 건강하고 투명한 사회가 되는데 거름이 되길 바란다. 선자들에게는 힘찬 박수를! 그리고 아쉽게 선에 오르지 못한 글에는 따뜻한 위로를 전한다.



사연수기





대상

별이 빛나는 밤

공직부문 안진우

카지노가 있는 정선의 밤하늘은 유난히 어둡고 음습하다. 그렇기에 그곳에 뜨는 별은 가장 찬란하게 빛날 수 있다.

월 새 없이 돌아가는 카드 소리에 사람들의 환호와 탄식이 뒤섞여 흐른다. 강원도 정선에는 황금빛으로 온 벽을 치장한 거대한 카지노가 있다. 24시간, 365일 언제나 북새통을 이루는데 여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은 각자의 선택에 의해 그 성패가 결정된다.

능숙한 카지노 딜러의 하얀 손은, 타락한 잼블러의 마지막 칩을 사정없이 집어 간다. 패배를 인정한 잼블러는 모든 걸 잃고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하지만 다음날이면 상처 입은 허물을 흉하게 드러낸 채 초라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곳은 탐욕의 한탕주의와 절망의 낭떠러지가 조우하는 카지노다.

나는 딜러의 뒤편에 서서 게임을 주시하고 있다. 손님의 동태와 게임 상황을 유심히 살펴보고, 흐름이 바뀔 때마다 베팅금액을 웹 패드에 입력한다. 내가 입력한 베팅금액은 게임 시간에 비례해 콤프(카지노에서 제공하는 마일리지)로 적립되고, 손님은 적립된 콤프로 호텔에 숙박하며 음식을 제공받는다. 나는 정선 카지노의 플로어 퍼슨(카지노 관리자)이다.

그날도 전쟁 같은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전화를 확인해보니 아버지에게 여러 통의 전화가 와있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을 지나고 있었다. 김포에 계신 아버지가 이 시간에 전화를 한 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상하다’

통화 버튼을 누르니, 전화벨이 한 번 채 울리기도 전에 전화를 받으셨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내가 너 일하는 데 한번 가보고 싶은데. 한 2박 3일 정도로.”

아버지는 무뚝뚝한 말투로 나를 보러온다고 하신다. 처음이었다.

성품이 강직하고 고지식한 아버지는 너무 정직하게 과일 장사를 하신 탓에 이문을 크게 남기지 못하셨다. 그렇기에 새벽이면 가장 먼저 일터로 향했고 늦은 밤이 되어서야 돌아오시곤 했다. 휴일에는 피곤함에 젖어 온종일

주무셨다. 도저히 가게를 비울 형편이 아니었고, 한평생 여행을 떠나지도 않으셨다. 그런 아버지가 갑자기 날 보러온다고 하신다. 알 수 없는 묘한 기분이 들었다.

“아버지! 이번 주에 저 쉬기 전날에 내려오세요.”

“그런데... 숙소는 어떻게 해야 하니?”

나는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다. 모처럼의 방문인데 아버지를 기숙사로 모실 수는 없었다. 내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 교만함이 꿈틀거린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 관리자잖아요. 오셔서 고객 카드만 만들면 제가 호텔이랑 뷔페 먹을 수 있는 콤프를 적립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게임 할 줄 모르는데.”

“에이! 아버지, 게임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는 너무 복잡해서, 그냥 콤프를 적립해도 아무도 몰라요. 제 동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호텔이라 하루 숙박료가 15만 원이 넘어요. 너무 비싸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물었다.

“그러면... 이틀 자는데 30만 원이 넘는단 말이지?”

“네!”

“흠... 그러지 말고, 아버지가 돈을 부칠 테니 방을 잡아줄 수 있겠니?”

‘정말 이상하다.’

내가 아는 아버지는 절대 그런 큰돈을 주고 호텔에 투숙할 분이 아니다. 그리고 돈도 아깝다. 나는 근무 중에 얼마든지 콤프를 적립할 수 있고, 그 마일리지로 호텔 방을 잡으면 된다.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내 선배, 동료들도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콤프 입력은 나의 업무이고 권한이다.

아버지는 당부하신다.

“이들아! 나는 직장생활은 잘 모르지만 영 석연치가 않구나. 회사에서 그런 큰 권한을 준다는 건, 그만큼 너를 정직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고리타분하게 들렸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해졌다. 막상 부정하게 콤프를 적립할 생각을 하니 찝찝한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호텔에 연락을 해보았다. 직원 할인을 받으니 생각보다 싼 가격에 호텔을 예약할 수 있었다. 호텔 직원과 객실 사용에 필요한 얘기를 나누던 중, 로비에서 회사 선배와 그의 가족들로 보이는 무리의 사람들이 나온다. 선배는 나를 불러 은밀히 말한다. “호텔을 왜 사비로 예약하니? 그냥 고객 카드 하나 만들어서 전산 입력해! 아무도 모르고 신경도 안 써! 그리고 우리 회사는 주인이 없는 회사라 괜찮아.”라는 말을 조언처럼 남기고 가족들과 함께 유유히 사라졌다.

기숙사로 돌아온 나는 동료와 식사를 하며 호텔을 예약하고 왔다고 말했

다. 동료는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나에게 융통성이 없다고 비웃었다.

정말 다들 콤프로 장난을 치고 있었다.

며칠 후 아버지는 테이블 건너편에서 내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다. 오랜만에 본 아버지의 모습은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병색이 짙은 노인의 모습이였다.

‘마음이 아프다.’

우리는 밖으로 나와 한참을 별말 없이 걷다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두운 정선의 밤하늘이 푸르게 빛나고 있었다. 풀벌레 소리가 멈추고, 정적이 흐른다. 걸음을 멈춘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작은 이익에 부정을 저질러 화를 당하지만, 욕심이 큰 사람은 ‘청렴함’이 몸에 배어 성공을 이룬다. 나는 우리 아들이 큰 욕심을 가진 사람이기를 바란다.”

콤프로 호텔 방을 잡으려 했던 나를 꾸짖는 질책이었다. 송구스러운 마음과 겸허한 마음이 공존한다. 아버지는 고개 숙인 나를 보듬으며, ‘별’이 되어 영원히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신다. 무뚝뚝한 아버지의 애정 어린 마음이 가슴을 따뜻하게 적셔왔다.

우리는 한참 동안이나 별을 바라보았다. 오늘따라 정선의 밤하늘은 유난히 밝고 수려하다. 수많은 별들이 눈앞으로 쏟아진다. 답답한 마음이 정화되고 청명해진다. 마음속의 탐욕도, 걱정도 사라진다. 그렇게 처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정선에서의 깊은 밤을 보냈다. 이튿날 아버지는 김포로 돌아가셨고 나는 일상으로 돌아왔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잠에서 깨어보니, 어머니로부터 수십 통의 전화가 와 있었다. 시냇바늘은 새벽을 지나고 있었다. 불길함이 엄습한다. 전화기 속 어머니는 아무런 말씀도 못 하시고 단지 흐느끼는 울음소리만 토해내실 뿐이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다. 암이었다. 죽음을 직감한 아버지는 가족에게 병을 숨기고 내가 일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러오셨다. 그리고 이내 집에서 탈이 나 병원으로 이송되고 말았던 것이다.

급히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했다. 운전하는 내내 굵은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본인을 장사치라 칭한 아버지는 공기업 직원인 당신의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고, 다 큰 아들이 혹시나 잘못될까 늘 노심초사하셨다.

아버지는 야원 몸을 병실 침대에 의지한 채 힘겹게 입을 여신다.

“눈앞의 작은 이익 때문에 부정을 저지르지 마라. 결국 나중에 더 큰 손해

로 돌아오게 된다. 항상 ‘청렴’하게 살기를 바란다.”

평생을 정직하게 장사하신 아버지의 삶, 철학이 담긴 마지막 당부였다. 그것은 나에게 유언으로 와닿았다.

화창한 5월의 어느 날, 아버지는 내 곁을 영영 떠나가셨다.

장례식에 찾아온 동료는 조문을 하던 중 회사가 발각 뒤집혔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다. 새로 부임한 감사님이 부정 콤프를 적립한 직원들을 색출하여 징계를 내린다는 것이었다. 회사 창립 이래 최대의 징계가 이루어졌고, 명단에는 수많은 선배와 동료들의 이름이 올랐다. 호텔에서 만난 선배와 기숙사에서 나에게 융통성이 없다고 비웃던 동료의 이름도 있었다.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성행하던 부정 콤프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아버지가 나를 만나러 정선에 오신 그날 호텔 방 하나에 양심을 저버렸더라면 상주 신분인 나 역시도 그 징계 명단에 이름을 올렸을 것이다. 불효이고 수치이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가장 우려하고 늘 당부하셨던 부분이다. 생각만으로도 자존감이 땅바닥으로 처박힌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 강한 울림이 있었다. 그것은 청렴하게 살라는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 심장을 관통하는 뜨거운 성찰이었다. 그날은 내 아버지의 장례식 날이었다.

인생의 모든 순간, 우리는 선택을 강요받는다.

선택의 기로에서 부정을 택한 이는, ‘청렴한 세상’을 꿈꾸는 집행자의 하얀 손에 의해, 모든 걸 잃고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자들 또한 깊은 상처의 허물을 흉하게 드러낸 채 초라하게 남겨진다.

꼭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청렴을 지키자는 것은 아니다. 나의 자존감을 채워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게 떳떳하고 청렴해야 한다.

간혹 내가 처한 입장 또는 주변인과의 관계에 따라, 부정과 마주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갈등을 느낄 때도 있다. 혹은 나 스스로가 ‘이 정도쯤이야.’ 하는 작은 유혹에 흔들릴 수도 있다. 그럴 때면 아버지를 떠올려 본다.

아버지가 당부하신 ‘청렴함’ 그리고 그것을 지켜달라는 간곡한 바람. 내 작은 의지로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사명이다. 그래도 흔들리면 나는 하늘을 바라본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수많은 별 중에 아버지가 남긴 청렴이란 ‘별’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우수상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일반부문 김시영

꿈보다 현실.

희망보단 생계를 위해 시시때때로 변해야만 했던 나의 진로.

화가가 되고 싶었지만, 미대에 입학할 형편이 되지 않아 패션디자인과에 진학했다. 대학 시절 내내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했지만, 공부 또한 등한 시하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고 코피까지 쏟으며 노력해 얻었던 공모전 입상 경험도 여럿 있었으니 취직이 어려우리라곤 예상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언제나 세상의 벽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기만 하였다. 학자금 대출은 밀려 있었고 당장 이번 달 월세도 걱정인 마당에 남들처럼 이것저것 따지거나 쥔 수는 없었다. 꼬박꼬박 월급을 주는 곳이라면 나의 꿈도 전공도 상관없다 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기에 이곳저곳 닥치는 대로 이력서를 제출하였다.

다행히 침구를 만드는 중소기업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고 나는 그렇게 꿈에 그리던 직장인이 되었다. 딸자식 대학 공부시키기 위해 허리가 휘청이도록 농사일하시던 홀어머니와 아직 어린 두 동생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으리란 생각에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뻐다.

낮설고 생소한 침구 회사에 다니면서 나는 업무를 배우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의상디자인과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다른 이 회사에서 쓸모 있는 직원이 되기 위해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은 꽤 버거운 일이었다. 게다가 크지 않은 회사였기에 인력은 부족했고 업무를 숙지할 수 있는 기한 또한 넉넉히 주어지지 않았다. 눈치껏 선배들의 일을 뒤치다꺼리 하면서 제 몫의 일감도 찾아야 했고 자신의 자리 또한 재빨리 만들어야 했다. 어머니께 드릴 빨간 내복을 사놓고서도 고향집에 갈 수 없을 만큼 시간이 부족했지만 밀린 학자금 대출 이자를 내고 월세를 충당할 수 있었다.

일 년여가 다 되어갈 무렵에야 내가 디자인한 이불이 OK 사인을 받을 수 있었다. ‘드디어 인정받는 진정한 회사원이 되었다!’ 하는 성취감으로 뿌듯했지만, 그도 잠시.

“시영 씨! 동대문 ○○업체에 가서 이불 원단 고르고 오세요. 나머지 것은 내가 진행할게.”

과장님의 말씀에 들뜬 마음을 안고 원단을 대어 주는 업체에 가보았지만, 그곳에는 내가 디자인하고 샘플까지 만들었던 원단과는 전혀 다른 것밖에

없었다.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돌아온 나는 과장님께 찾는 원단이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은 이상스러우리만큼 단호하셨다.

“그냥 얼추 비슷한 것이라도 고르면 되지 뭘 그리 까탈스럽게 굴어. 신입은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밤낮없이 고생하며 만든 나의 첫 결과물이었다. 원단의 소재가 달라지면 디자인까지 달라 보이는 침구의 특성상 아무것이나 고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께 의사를 전달했지만 번번이 묵살될 뿐이었다.

샘플을 만들 때 원단을 구입했던 업체에는 내가 원하는 원단이 있었고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고까지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은 묵묵부답이셨다.

그리고 며칠 뒤.

“시영 씨! ○○업체에 새로 들어온 원단도 많다니까 오늘은 결정하고 와요. 시간 늦어지면 다음 시즌 신제품으로는 못 나가는 거 알지? 그러니 오늘 꼭 선택하고, 참 이견 차비로 쓰시고!”

과장님이 던져 주신 하얀 봉투 속에는 무려 백만 원.

1,000,000이란 숫자가 뚜렷하게 적혀있는 백화점 상품권이 들어 있었다. 가슴은 두근두근 방망이질 치고 있었고 동시에 직장동료들이 소곤거리며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귓가를 스쳐 지나갔다.

“박 과장님이 ○○원단에서 뒤통 받는다라고 하던데?”

“부하 직원들이 디자인한 건 무조건 ○○원단으로 하라고 강요하잖아. 다 이유가 있겠지.”

‘설마 아니겠지.’ 했던 동료들의 이야기는 내 손에 쥐어진 상품권과 함께 진실이 되어 돌아오고 말았다. 거래처에서 뒤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러 가는 직원에게 현금과도 같은 상품권을 줄 이유가 전혀 없지 아니한가.

복잡한 마음을 안고 해당 업체에 다시 가보았지만 내가 원하는 소재의 원단은 없었다. 비슷한 원단이 있긴 했지만 그 원단은 내가 샘플로 제작했던 원단보다 무려 두 배 이상 가격이 높았다.

당장 원단을 정하지 않으면 일정에 차질이 생긴다는 과장님의 말씀과 내 싸구려 핸드백 속에 들어 있던 고액의 상품권이 내 마음을 어지럽혔다. 나의 의견을 들어줄 과장님이 아님을 알고 있었고 상품권이 욕심나지 않는 것도 아니었다.

‘과장님과의 언쟁이 이어지면 회사에 다니는 것도 불편해질 것이다. 백만 원이면 두 달 치 월세도 넘는 돈이 아니던가. 내가 고집부린다고 회사가 달라질 일도 없지 않은가?’

나는 집에 돌아와서도 뜬눈으로 고민해야 했다.

길고 긴 밤을 하얗게 지새우고 나는 결국 출근을 하자마자 과장님께 봉투를 돌려 드렸다.

“과장님! 이걸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쪽 원단으로 정하면 침구의 가격이 40% 이상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샘플 만들 때 사용했던 원단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과장님은

“이불 많이 팔린다고 보너스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제품 가격 올라가는 것도 네가 상관할 바 아니잖아. 뭘 이렇게 말을 안 들어? 회사 그만 다니고 싶어?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뭣도 모르는 게 어디 상사를 가르치려 들어?”하고 언성을 높이셨지만 나는 내 뜻을 굽히지는 않았다.

나와 과장님의 다툼은 삼시간에 퍼져 나갔고 사장님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다. 결국 과장님은 회사를 그만두어야 했지만, 마지막 날까지

“어딜 가든 그리 꼬투리 잡고 융통성 없이 직장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대한민국은 관행이라는 게 있는 나라야! 주고받고 다 그리하며 사는 거지! 어디서 혼자 깨끗한 척이야? 너, 내가 이 회사 잘 다니게 놔두나 한번 봐라.”라고 말씀하면서 짐을 꾸리셨다.

암암리에 이루어지던 이러한 비리들은 비단 과장님 혼자만의 일은 아니었

다. 연루되어 있던 다른 직원들이 꽤 있었고 나는 곧바로 따돌림의 대상이 되었다. 양심을 지켰으니 잘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슬금슬금 나를 피하는 동료들 속에서 곳곳하게 회사를 다닐 용기까지는 낼 수 없었다.

사표를 냈지만 신입 사원에게 인수인계를 하는 데엔 며칠간의 말미가 필요했고, 퇴직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누군가가 나를 찾는다는 소리에 회사 로비로 내려가니, 샘플을 만들 때 사용했던 원단 업체의 사장님이 내게 손짓하고 계셨다.

“어이구! 고마워요. 오늘 원단 납품 결제 받았어요. 정말로 감사해요. 이 건 정말 작은 거지만 선물이니 꼭 받아 줘요!”

종이 한 장조차도 받을 수 없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사장님은 극구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뇌물 같은 거 줄 수 있는 형편도 안되는 회사라서... 그제 오랫동안 정직하게 장사를 해 오긴 했는데 사실 오늘 망하나, 내일 망하나 그러고 있었거든요. 우리 공장에서 남은 자투리 원단으로 아내가 베개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 재활용품은 팔 수도 없는 거니 제발 받아 줘요.” 하며 사장님은 검정 비닐봉지 하나를 내 손에 쥐여 주시고는 저 멀리 뛰어가 버리셨다.

이틀 뒤,

나의 젊음과 열정을 쏟아부으리라 결심하며 들어갔던 생애 첫 직장을, 나

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퇴사하고 말았다. 다시 한참 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처지가 되자 때때로 후회가 밀려들었다. 나 하나로 그 회사가 달라질 것도 아니었는데, 관행이란 명목 아래 모두 다 그리한다던데, 나만 눈 질끈 감고 다녔으면 이리 고생하지는 않았을 텐데……. 더러는 내가 바보 같은 일을 한 것은 아니었나 싶었다.

그래도 잠자리에 누울 때마다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곤 했다.

현실은 늘 꿈과 다르고 먹고 살기 위해서 때로는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하는 일도 생기지만 그래도 양심만큼은, 정직만큼은 꿈과 희망보다 먼저 지켜야 할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가 아니던가.

꿈과 진로는 바뀔 수도 있지만 양심만큼은 움직여서도 변화해서도 안되는 절대적인 것임을, 나는 매일 밤 좁디좁은 자취방의 작은 침대에 누우며 깨달을 수 있었다.

삶은 팍팍했고 내일의 생활은 더 염려스러웠지만 재활용하였다는 그 벼개를 베면 스르르 달콤한 잠에 빠질 수 있었다.

두 다리를 쭉 뻗고 단잠을 잘 수 있는 것. 양심을 지킨 자만이 맞이할 수 있는 그 편안한 밤을 세상 그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

참으로 거룩하고 고요한 그 밤을…….



우수상

두 어르신의 사과

일반부문

신영민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자라면 누구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한다. 그리하여 대부분 군대에 입대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만, 나는 조금은 특별한 경우로 산업기능요원으로서 군복무를 대신하였다. 그때의 잊지 못할 경험을 이번 '2019 국민 참여 청림 콘텐츠 공모전'을 통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나는 선박의 항해사로 병역특례생활을 하였다. 내 또래 친구들이 연병장에서 총을 들고 훈련받고 있을 때, 나는 드넓은 바다에서 쌍안경을 들고 항해를 하고 있었다. 내가 승선했던 배는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중국이나 일본, 멀게는 홍콩까지 수출하는 선박이었고, 나는 길게는 9박 10일씩 좁은 배 안에서 생활하며 육지가 보일 때까지 3교대로 항해하는 일을 담당했다.

학교에서 공부만 하던 철부지 어린 학생이 선박에 승선하여 바로 업무를

말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외로움이었다. 한국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부모님 걱정도 많이 됐지만, 울면서 나를 떠나보낸 여자 친구가 그 누구보다도 보고 싶었다. 그렇게 향수병 아닌 향수병에 걸려 초반 3개월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도 힘든 나날들을 보냈다. 이런 고충은 나만이 겪는 일이 아니었다. 아마 해상직원들이라면 누구라도 공감할 것이다.

그런 고충에 대한 위안이라면 위안이랄까. 선박 직원들이 제일 기다리는 것은 육상으로 상륙하는 시간이었다. 한국에서 실어온 짐을 부리는 반나절 정도의 시간이 직원들에게는 종종 자유시간으로 주어졌는데, 이때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오랜만에 통화도 하고 외국의 대도시를 관광하며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풀 수가 있었다.

드디어 길고 긴 열흘간의 항해가 끝나고 모두가 기다리던 중국의 큰 도시에 입항(入港)하는 날이 되었다. 육상으로 상륙하기 전 선장님께서 직원들에게 봉투를 하나씩 나누어 주셨다. 그 봉투에는 중국 돈이 들어있었다.

당시 아무것도 모르는 초임항해사였던 나는 나의 바로 윗선임인 항해사님께

“이게 무슨 돈인가요?”라고 물었다.

“응, 그런 건 네가 몰라도 되니까 선장님께서 주시면 그냥 ‘고맙습니다’하고 받으면 되는 거야.” 하며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

세상에 돈 싫다 하는 사람이 있을까. 나 역시도 마찬가지였기에 ‘이게 웬 떡인가!’ 하며 기분 좋게 봉투를 받아들고 첫 상륙지를 관광하였다. 그렇게 중국에서부터 일본, 멀게는 대만까지 항해하며 나는 점점 초짜 항해사에서 거친 파도와 싸우는 바다 사나이가 되어가고 있었다.

일은 선박이 중국의 ‘상하이’라는 도시로 입항한 날 일어났다. 기관실에서 기관장님과 기관사님께서 언성을 높이며 다투고 계셨다. 기관실의 소음 때문에 정확히 어떤 이유로 다투시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상황이 매우 심각해 보였고, 급기야는 전 직원을 휴게실로 소집하기에 이르렀다.

기관장님께서 상기된 얼굴로 말씀하셨다.

“아이고 선장님! 기관사 저놈이 글썽 그동안 우리가 했던 일을 안 하겠답니다!”

‘그동안 우리가 했던 일?’ 도통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 말을 들은 선장님께서 말씀하셨다.

“기관사 이 사람아! 그건 어느 배에서나 하는 일이야. 우리 배에서만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네!”

그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기관사님께서 말씀하셨다.

“다른 배에서 한다고 우리 배에서도 한다는 말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더이상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기관사님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옆에 계시던 기관장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 참 말 안 통하는 사람이구먼! 그 일은 우리 직원들 회식비로도 쓰고 상륙할 때 용돈도 마련하려고 하는 일이네. 다른 배에서도 다하는 관행이야, 관행! 자네 앞길도 한참 남았고 나중에는 기관장도 해야 할 사람이, 이러면 회사생활 힘들어진다는 것 모르겠나?”

“안됩니다! 적어도 제가 이 배에 있는 한, 두 번 다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기관사님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시면서 소동은 일단락되었다. 그 순간 15명의 직원 중 단 한 사람, 나만 어리둥절해 있었다. ‘어느 배에서나 하는 일? 회식비? 관행? 용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머릿속이 복잡해져만 갔다. 궁금한 건 못 참는 나였기에 곧바로 선임 항해사님께 찾아가 무슨 일인지 여쭙보았다.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각 기항지나 입항지에서 가끔 또는 자주 선박의 연료유(燃料油)를 현지인들에게 암암리에 조금씩 팔아 왔으며, 그렇게 얻은 수익으로 회식을 하거나

직원들에게 상륙비 명목으로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내가 첫 상륙지에서 받았던 돈도 바로 그런 돈이었다. 그런 일들이 관행(慣行)이라는 미명 아래 선박에서 벌어지고 있었으며 더이상 양심의 가책을 무시할 수 없었던 기관사님의 양심 고백이라면 양심 고백이, 다시는 선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끈 것이다.

그날 이후 선박에서는 미묘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직원들이 하나둘씩 기관사님을 피하기 시작했고, 기관장님은 점점 기관사님이 하는 일에 탄지를 걸기 시작하셨다. 직원들 두 명만 모여도 기관사님 흉을 보기 바빴다.

“그래 넌 잘나서 좋겠다. 혼자 잘난 적은 다 해요, 다 해!”

학창시절에나 있을 법한 ‘따돌림’이 내가 타고 있는 선박에서도 일어났다. 기관사님은 바른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했음에도 욕을 얻어먹었다. 기관사님은 그런 말을 듣고도 대꾸조차 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업무에만 집중하셨다. 그런 기관사님께 나이 어린 초임항해사인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말없이 커피를 타드리는 일밖에 없었다.

그리고 몇 달 후, 갑자기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선박에 비상이 걸렸다. 선박 직원들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있을 거라는 소문 때문이었다. 소문은 사실이었다. 누군가가 회사에 투서를 넣은 것이다. 투서의 내용은 바로 ‘다른 배에서도 다 하는 관행’에 관한 내용이었으며 한 직원이 퇴직을 하며 선박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졌던 연료유 매매 행위에 대해 고발을 한 것이다.

그 고발 이후 회사는 발각 뒤집혔다. 소속되어 있는 전 선박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졌고 몇몇 선박들의 책임자와 가담자들은 경찰에 고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 물론 몇 달 전 그런 행위가 근절되었던 우리 선박은 그 칼날을 피해갈 수 있었다.

그런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났을까. 선장님께서 전 직원들을 소집하셨다.

“기관사에게 제가 큰 빚을 졌습니다. 그건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 생각해서 한 일이었습니다만 그것은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관행이라 괜찮다고 말했지만, 이는 자기합리화였으며 범죄인 줄 알면서도 저는 억지로 눈을 감아 버렸습니다. 여러분께 부끄러운 모습 보여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힘들었을 기관사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습니다.”

옆에 계셨던 기관장님도 한마디 하셨다.

“기관사에게 미안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동안 기관사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 점 깊이 반성하고 저 또한 기관사에게 사죄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선박의 두 어른님께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기관사님에게 사과를 하셨다. 말없이 앉아 계셨던 기관사님의 두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만이 흘러 내리고 있었다.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눈물이었다. 그리고 결국에는 본인의 결정이 옳았다는 깨달음의 눈물이었을 것이다.

위계질서와 상명하복이 고착화된 한국 사회에서는 부패에 대한 문제 제기가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 오해는 때로는 인사에 대한 보복이나 집단 따돌림으로 표출되어 올바르고 용기 있는 선택을 하는 이들을 좌절하게 만든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흔들리지 않는 신념은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해주는 큰 힘이었고 대한민국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다.

그 일은 10년째 승선하고 있는 내 인생에 큰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 ‘권선징악(勸善懲惡)’이라는 지극히 평범하고 흔한 고사성어를 내 마음에 깊이 새겨주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일을 하다 보면 가끔씩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검은 유혹이 다가올 때가 있다. 나는 그럴 때마다 기관사님이 흘리셨던 눈물을 생각하며 크게 외친다. “안됩니다!”라고 말이다.



우수상

‘문득’은 ‘아련’이 되어

공직부문 기라성

모처럼 친구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갔다. 아버지는 한 중학교 앞에서 호떡을 굽고 있었다.

“많이 먹고 가렴”

아버지는 호떡을 굽다 말고 조용히 자리를 피해 저쪽 나무 아래로 가셨다. 맛있게 호떡을 먹고 있는 친구들을 두고 나는 아버지께 다가갔다.

“아버지, 왜 여기 나와 계세요?”

“우리 아들이 창피할까 봐.”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고개 숙여 눈물을 흘렸다.

‘문득’은 ‘아련’이 되어간다. 삶의 한가운데에서 문득 떠오르는 당신을 나

는 오늘도 아련히 기억한다. 부모는 자식에게 보잘것없는 창피함보다 자랑스러운 본보기가 되고 싶을 것이다. 우리 아버지도 그랬다.

아버지는 빈손으로 전라도 장성에서 도시까지 올라와 가정을 꾸렸는데, 호떡을 굽고, 버스도 운전하고, 구급차 기사도 하며 힘들게 가정을 돌보셨다. 여러 직장을 거치면서도 아버지께서 가장 중요시한 것은 ‘신뢰’였다. 구급차 기사를 하던 시절 인연을 맺은 가족에게는 늘 안부 인사를 전하고 이따금 나와 함께 병문안도 가시곤 했다.

신뢰로 쌓은 인연과 주변의 정직한 평은 아버지를 어느덧 한 사업체의 사장 자리에까지 올려주었다. 아버지는 지역의 학교, 업체 등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식품 도소매업을 하셨는데, 언제나 신선한 재료를 고집하셨다.

주변 경쟁 업체들은 이윤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아버지는 그가 걸어온 길 그대로 이윤보다는 고객에 대한 신뢰를 더 중시했고 성실함과 고객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은 점점 성장해 나갔다. 하지만 이윤이 남지 않아 힘든 고비도 많았는데, 새벽마다 도매시장에서 식품을 선별하고 가장 신선한 재료를 제일 먼저 구입해야만 했다.

아버지는 본인의 자리를 늘 무서워했다. 언제나 자신을 되돌아보며, 사업장의 리더로서 본인의 부패와 일탈을 방지하는 견제 장치를 어떤 방식으로 더 많이 만들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곤 했다. 또한, 일순간의 일탈로 본인의 가정뿐만 아니라 리더를 따르는 직원들의 가정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아버지는 회식을 할 때마다 직원들과 시간을 짧게 가지고 늘 일찍 일어나 혼자 오시곤 했다.

“아버지! 아버지는 왜 늘 먼저 일찍 오세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조직 구성원들이 리더를 평가할 시간을 주려고 하는 거란다. 리더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서로 논의할 시간 말이다.”

“사장 욕할 시간 주는 거네요?”

“허허허, 그런 셈이지.”

아버지는 늘 “上行下效(상행하효)”를 마음에 품고 말씀하시곤 했다. “윗 사람이 행하면 아래 사람이 본받는다.” 즉,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뜻으로 제일 청렴해야 할 사람은 직원들이 아니라 리더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아버지는 상호 토론과 대화를 좋아했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또 평가받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업무 협의를 오는 타사 직원들이 주차 공간이 불편하다고 호소하자 인근 유료주차장에서 주차권을 사전에 구입해 두고, 회의 전 명함과 함께 이를 한 장씩 건네주곤 했다.

사업을 하다 보니 부정한 청탁은 보통 이와 같은 업무 협의에서 은밀히 이루어짐을 깨닫게 된 아버지는 고민이 깊어졌다. 무작정 고향에서 올라와 지금까지 본인이 이루어온 모든 것은 성실함과 주위 사람들과의 신뢰 덕분

이었고, 청렴에서 나오는 당당한 업무 추진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사업가로서 그러한 청탁을 자연스럽게 거절하기란 영 쉬운 일은 아니었다. 당당하게 물리쳐야 할 청탁임에도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서 어렵고 미안해하며 불편한 미소로 거절해야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유료주차장 사업주를 찾아갔다. 주차권 제작 시 디자인을 새롭게 하자는 제안이었다. 그 주차권에는 청렴을 강조하는 문구를 새로 넣고, 부패·공익 신고와 상담을 하는 대표 전화를 넣기로 한 것이다. 아버지는 회의 시작 전에 늘 먼저 새롭게 제작한 주차권을 건넸다.

“주차권입니다. 돌아가실 때 제시하시면 됩니다.”

청렴 문구가 함께 적힌 새로운 주차권과 명함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전달해주었다. 그렇게 아버지는 당신이 만나는 모두에게 청렴 의지를 강력히 표현하였고, 부정한 청탁들을 한결 편한 마음으로 거절할 수 있었다.

공기업 직원으로서, 나는 아버지의 이러한 사례를 본받아 기관의 청렴 담당 업무를 담당하며 관련 아이디어를 내고 청렴 주차권 제작까지 실천한 바 있다. 아버지는 늘 내게 귀감이 되어주셨다.

언제나 뒤에서 묵묵히 응원하기를 좋아하시던 아버지.

말보다 마음으로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셨는데, 그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은 언제나 본인이 먼저 실천하는 것이었다.

하창 시절, 어두워진 하룻길에 집까지 오는 동안 책을 보며 걸어온 적이

있었다. 그렇게 한참을 걸어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뒤에서 내 어깨를 감싸주었다. 아무리 먼 길이라도, 아버지는 그렇게 늘 내 뒤를 묵묵히 지켜주며 아무 말 없이 함께해주셨다. 그래서 늘 긴장하고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며 가다듬을 수 있었다.

아버지는 직장에서도 직원들에게 그랬다. 언제나 묵묵히 각자를 응원하였다. 직접 실천하는 공정한 업무처리와 조용히 전해지는 믿음은 백만 번의 지시나 부탁보다 더 힘이 있었다. 즉, 모든 업무에 신뢰와 공정함을 바탕으로 한 리더의 청렴 실천은 직원들에게 따로 지시하거나 부탁할 필요가 없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직원들은 마음으로 느껴지는 아버지의 그런 깊은 믿음에 대해 신뢰와 공정한 업무로 보답하고자 했다.

5개월간의 인턴사원을 거쳐 최종면접일에 면접관은 내게 질문했다.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를 가장 존경합니다. 저는 아직 정직, 청렴, 공정 이러한 의지의 의미를 모릅니다. 그건 아마도 제가 아직 어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지는 이러한 실천들이 쌓여 10년 뒤, 그리고 20년 뒤 큰 자산이 되어 자신에게 큰 힘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사업장의 사업가일 뿐이지만 누구보다 당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저는 이러한 청렴의 힘을 믿고 실천하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저의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지금은 긴 투병 끝에 하늘로 가신 아버지. 초롱초롱한 내 아이를 보며 문득 아련해진다. 그렇게 묵묵히 지켜주던 아버지의 든든함이 그림다.

문득은 아련이 되어

문득문득 그러보는 초롱한 내 아이

생각을 담은 중에도 고민을 내려놓은 그 사이에도

가슴 언저리에서 문득 피어나는 너

나도 그 사람에게 문득이었을까

문득문득 그렇게 언저리에서 느껴졌을까

그의 유년을 지나 나와 만난 후

문득문득 여겨주었을까

사랑하는 널 문득 여기며

문득 아려오는

나도 그가 되어가는 또 오늘에서

먼길을 걷고 돌아 2층 후미진 곳의 문을 열었다. 아버지와 엄마, 동생들이 있었다. 여전히 장비에 둘러싸여 있고 바늘을 꽂고 누워있었지만 언제나 처럼 그는 여유롭게 기대어 있었다. 가족들이 하나같이 물었다. 갑자기 무슨 검사냐며 모두 의아해했지만 그는 그저 웃기만 했고, 엄마는 정기적인 검사라며 모두를 안심시켰다. 가족 모두가 둘러앉아 모처럼 환하게 웃었다. 그도 장난스럽게 미소 지었다. 가족들이 웃고 있을 때 나도 한마디 거들었다.

“아버지, 나 잘 살고 있지?”

그가 내게 말해주었다.

“응, 누구보다 정직하게, 청렴하게 아주 좋구나!”

갸다. 여전히 눈은 감고 있지만 정신은 멀쩡했고, 나는 그렇게 누운 채로 하염없이 또 한참을 울었다.

“그 말이, 그 말을 그렇게 해주고 싶었구나. 아버지, 바쁘다고 잊고 있었어요. 그새 잊고 살았네. 아버지.”



우수상

청렴한 복지의 시작

일반부문 | 이은하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꼬박 5년 동안 저의 별명은 식모였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실실거리며 부르던 호칭이었습니다. 그 말이 나를 버리고 나간 어머니를 떠올리게 하여 너무나 아픈 호칭임에도 말입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집에 없는 것은 마찬가지였고, 네 식구의 집안일은 온전히 저의 몫이 되었으며 동생의 교육, 생활 등 그리고 하다못해 모든 집안 공과금까지 제가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저희 삼 남매에게 말했습니다. “이 상황에 나라도 너희를 버리지 않은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대단하다 한다.”라고 말입니다.

저는 가정폭력 피해자입니다. 저에게 잔인하게 수없이 많은 가정폭력을 일삼은 그들은 아버지, 언니 그리고 동생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가정폭력을 당한 이유는 10년을 넘게 생각해봐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와 자는 척하고 있는 저희 모두를 깨웠습

니다. 고문하다시피 당신 앞에 앉혀 놓고서 어린 동생을 야구방망이로 때린다며 으박질러댔고 저는 그것을 막기에 바빴던 날이 몇 번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언니에게 제가 일방적으로 맞고 이를 이룬 날이면 고등학생이나 된 딸 둘을 엮으려 뺨치라고 해놓고서는 야구방망이 또는 쇠파이프로 엉덩이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권투선수 출신으로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때리고도 대체 무슨 분이 풀리지 않은 것인지 세상에서 들어보지도 못한 앞으로 들어보지도 못할 욕을 퍼부어 댔습니다.

그리고 언니는 성인이 되어도 사춘기가 끝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수도 없이 본인의 기분에 따라 별것도 아닌 일에 제 머리채를 잡고 쌍코피가 날 때까지 코를 짓이겨 놓았으며, 열 살 어린 동생과 함께 있는 제 앞의 유리창을 깨서 온몸에 깨진 유리가 쏟아지게까지 하였습니다. 저는 언니에 비해 체구가 작지는 않습니다. 언니의 곱절은 될 만큼 컸고 힘도 훨씬 센 편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들에게 똑같이 대응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이니까.

그렇게 지옥보다 더한 날들을 보내던 중 아버지가 저희 삼 남매에게 지금 형편이 너무 좋지 않아 생활비를 줄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항상 여자 친구와 성인PC방에서 게임 도박을 했고, 여자 친구에게는 매달 150만 원 이상의 생활비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술 먹고 미끄러져서 다리가 다쳤다는 등 온갖 거짓말로 보험사기도 수없이 저질렀으며 수차례 큰 금액의 보험금도 수령하였기에 형편이 좋지 않다는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무기력함과 무책임함, 그리고 부정함과 청렴하지 않음을 말입니다.

주민등록상 저희 남매는 어머니와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일 때 아버지는 허위로 어머니를 실종 신고했고 앞으로 연을 끊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일을 하고도 있었지만, 자영업자이기에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는 부정한 방법을 써서 그 당시 동사무소에 아버지가 부양의무를 할 수가 없다며 저희를 기초생활 수급자로 부정 신고하였습니다. 관할 시청의 모든 절차가 통과되어 삼 남매는 언니를 세대주로 기초 생활 수급자가 되어 한 달에 약 6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평소 씹씹이가 해폰 언니에게 돈을 맡길 수 없기에 구두쇠라고도 불리던 제가 돈 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초 생활 수급비는 분명 세 명분이었지만, 언니는 본인이 무조건 반을 가져야 한다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렸고 그냥 쥐버리라며 던지시 던진 아버지의 무책임한 말에, 결국 언니와 30만 원씩 나눠 가지고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30만 원의 수급비에 대한 지출을 말하자면, 각종 공과금과 네 식구의 식사 준비, 제 용돈과 학교 준비물, 도시락 준비, 동생의 용돈과 동생의 준비물, 동생의 옷까지입니다. 지금 이 지출 내역에 대한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 그게 가능한 일이라며 대단하다고들 말합니다. 저 역시도 다시 해보라고 한다면 절대 못 해낼 것 같습니다.

언니는 평소 아버지의 여자 친구를 아주 싫어했고 아버지와의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로 인해 제 눈앞에서 아버지가 언니에게 아주 끔찍한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되었고, 경찰의 중재로 서로 분리 조치만 되어 그 길

로 언니가 집에서 나갔습니다. 그 직후 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이틀째 되는 밤, 또 만취하여 들어온 아버지가 이번엔 저에게 다짜고짜 욕을 하고 집에서 나가라며 선풍기를 들어 저를 내려찍으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언니의 가정 폭력 사건 때, 경찰의 안일한 조치를 목도하였기에 신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다음 날 언니가 살고 있는 고시원 옆방으로 짐을 싸들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 열여덟 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일찍이 독립을 하게 된 저는 여러 업종에서 1분 1초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소득이 많아져 기초 생활 수급 대상에서 탈락된다고 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는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 기초 생활 수급자를 이어가자고 했지만, 곧 성인이 될 저는 아버지와 달리 정정당당하게 사회에 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언니와 동생은 기초 생활 수급자를 이어나가고 싶다고 하기에 삼 남매의 세대에서 저만 나오게 되었고, 그 때부터는 언니가 돈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2~3년 후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저에게 닿았습니다. 저는 친할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하게 되었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비록 아버지의 사과는 없었지만, 동생을 위해 함께 살자고 하여 다시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아버지가 어린 동생 앞에서 유부녀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고, 저는 이에 반대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난 어느 날, 새벽에 아버지가 또 만취해서 제 방 창문과 현관문을 발로 차며 욕을 하고 있었

습니다. 저는 곧바로 현관문을 열었고 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동생과 방에 들어가 결국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온 경찰은 저희와 아버지를 곧장 분리 조치 해주었고 '상습적 폭행이라면 동생에게도 폭행을 저지를 수 있으니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저도 그에 따라 형사 처벌까지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또 2~3년 정도가 흐른 뒤, 어느 날 제가 동생에게 '수급비는 잘 받고 있어?'라고 물었는데 동생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에 언니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물었더니 자기 덕분에 나오는 수급비니까 자기 것이라며 열 살 어린 친동생에게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매달 수급비가 80~1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었으며 언니는 그 돈으로 월세 120만 원의 집에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동생 앞으로 나왔던 수급비를 돌려달라고 주장했지만, 부정 수급이기에 돌려줄 의무가 전혀 없다며 결국 한 푼도 받아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언니가 혼자 수급비를 받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없다며, 동생이 고모네 집에서 얹혀사는 것으로 조작하여 또 기초 생활 수급자 신청을 하였고 이 또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동생도 아버지의 가정 폭력에 못 이겨 혼자 살게 되었는데, 수급비에 대한 고마움도 소중함도 모르고 씹씹이가 점점 커지는 것이 제 큰 누나처럼 될 것이 뻔해 보였습니다. 이에 제가 잔소리를 하였더니 아

버지가 했던 것처럼 저에게 온갖 물건을 집어 던지고 폭행을 했습니다. 5년 동안 정말 진심으로 목숨같이 키웠던 동생이 말입니다.

저는 제가 나서지 않아도 세상에서 나쁜 사람들은 벌 받고, 미흡한 규제나 법률이 개선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은 아무 노력 없이는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국민신문고에 상세 내용을 기재하여 부정 수급으로 신고하였고, 그 후에 관할 시청에 재문의 하라고 하여 다시 부정 수급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관할 시청에서는 아버지와 언니, 동생과 통화도 하였고, 방문도 하였으며 최선을 다해 알아보았지만 아무래도 수사 기관이 아니다 보니 작정하고 숨긴 증거들이라 부정 수급이라는 확증이 부족하여 처리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담당 시청 직원은 웃음소리까지 내가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넉넉한 것도 아니고 형편이 어려우신 것 같은데…. 기분 푸시고 그냥 두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분명히 해두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 가족이었던 사람을 부정 수급 신고하는 것은 겨우 분풀이로 할 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닌, 십 년이나 지속된 부정하고 청렴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오랜 시간을 들여가며 상세히 설명하고 설득하면서까지 말입니다.

저는 저 말을 한 시청 직원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의 어렸을 때 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난하지만 화목하게 사는 것이요.’라고 말입니다.

제가 너무 큰 것을 바랐던 것일까요? 전 아직도 가끔 생각합니다.

‘만일 처음부터 기초 생활 수급자가 되지 않았거나 중도에 복지 혜택이 끊겼더라면, 아버지는 열심히 일하고 책임감 있게 삼 남매를 보살피 주지 않았을까? 언니도 노동력과 그에 대한 보상이 얼마나 값진지 알게 되지 않았을까? 지금도 부정 수급을 받고 있는 동생이, 제 아빠와 누나처럼 변하지 않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더이상 침묵으로 동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일로 한여름 더위에 지쳐 허를 늘어뜨린 개처럼 힘이 쭉 빠지는 절망감을 느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무분별한 복지로 인해 저와 같은 피해를 보는 사람이나 부정 수급자가 더이상 증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지 혜택은 정말 필요한 사람이자 소외된 계층에게 넉넉히 주어져야 하는 것이 맞고 그것이 청렴한 복지의 시작일 것입니다.



장려상

꿀과 꿈의 경계선에서 청렴을 생각하다

공직부문 우상민

꿀의 의미

나는 대한민국의 소방공무원이다. 몇 해 전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던 시절의 이야기가 떠올라 한번 적어본다.

평소 노봉주(露蜂酒)와 같은 별술에 관심이 많던 ○○ 선배가 내게 다가와 말씀하셨다.

“○반장,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면 나랑 어디 좀 갈래?”

“어디를요?”

“아, 지난번에 우리가 양수기로 물 퍼내어 주었던 양봉업자네 집 기억하지? 거기서 뭐 좀 줄 게 있다고 하던데……. 재미있는 구경 시켜줄 테니 오늘 나랑 같이 좀 가자.”

나는 선배의 간곡한 요청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되었다. 우리가 도착

하자마자 양봉업자는 버선발로 나와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 야외에서 바비큐를 하던 중이었는데 우리에게 돼지고기를 먹고 가라고 했다. 우리는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결국 그의 저녁 식사에 합석하게 되었다.

“이 술도 한잔 잡숴봐. 이게 바로 내가 만든 노봉주라네, 하하. 지금이 제일 맛있을 때인 기라. 지난번에 신세 진 것도 있고 해서 내가 억지로 자리를 맴글어 놓은 기야. 지난번에 우리 소방관 아저씨들이 없었으면 내가 제대로 물난리를 겪었을 게야.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 그려.”

“아이쿠, 그건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식사는 가능하지만 술잔을 받기는 어려울 거 같아요. 이따 집에 갈 때 직접 운전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도 출근이라…….”

“에이 대리운전 부르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이 시골에도 대리운전 기사가 오나요?”

“우리 집까지는 안 오지만 요 앞에 큰길까지는 오지. 우리 동네가 작긴 하지만 그래도 오십 가구는 거뜰히 넘는다니까. 허허.”

우리는 대리운전 기사가 온다는 말에 안심하고 술을 받아 마셨다. 잠시 후 양봉업자의 친구가 왔는데, 그분은 소방조직에서 무려 30년간 근무하다가 몇 해 전 정년퇴임을 했다고 말씀하셨다. 그 퇴직 선배는 공직 생활의 파란만장했던 무용담을 근 한 시간 동안이나 쏟아내었다.

“내가 소싯적에 이 노봉주를 만들어서 명절마다 우리 과장님들한테 선물로 줬지. 그래서 나도 편안하게 공직 생활 했고 말이야, 하하. 요즘 뭐 김영

란 법이다 청탁금지법이다 하면서 말들 많은데, 그놈의 법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의 파스한 정이 다 사라져갈 판이야. 이런 영양가 높은 술도 선물해 주고 또 굴비 같은 선물도 받고 얼마나 좋아 안 그래? 저기 고기 굽고 있는 이 집 주인 양반보다 내가 훨씬 더 잘 만든다고. 그러니까 내 걸로 가져가. 그러면 앞으로 자네들 공직 생활 탄탄대로라고, 하하. 이런 노하우는 어디 가서 배우지도 못해. 오늘 내가 기분이 대따 좋으니 수강료 하나도 안 받고 과외 해주는 걸세 하하.”

○○ 선배는 양봉업자로부터 술을 건네받더니 얼큰하게 취한 얼굴로

“이 빨간 향아리는 우리 과장님 거, 이 파란 향아리는 우리 팀장님 거 그리고 이 금색 향아리는 내 거. 하하! 오늘 술맛 죽이는구먼. ○반장, 지금 뭐 하고 있어? 술 단지 열면 안 챙기고 뭐 하는 거야. 뭘 그렇게 꾸물거리고 있는 거야?”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 선배의 행동을 보고서 잠시 망설이다가 “저는 지금 이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라고 말했다.

순간, ○○ 선배는 나를 흘겨보면서 말했다.

“시끄럽고 뻘쭙. 내 할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자네는 신경 끄게. 정 마음에 들지 않으면 먼저 집으로 가든지. 나는 아직 할 일이 더 남아서 말이야. 여기 이 돈으로 대리기사 불러서 가.”

난 ○○ 선배의 행동에 화가 났고 자존심이 상했으며 마음 깊은 곳에 생채기가 났다. 그날 이후 나와 ○○ 선배는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었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화조차 나누지 않았다. 나는 모종의 대가를 지급하고 그 대가를 발판삼아 진급했던 퇴직 선배와 또 내 옆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현재를 살아가려고 하는 ○○ 선배 모두에게 큰 실망을 했다.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고, 예전의 방식대로 살다가는 분명 이 사회에서 도태될 거라고 명확하게 인식했기 때문이다.

꿈의 의미

순간 나는 내 소년 시절의 일화(逸話)가 하나 떠올랐다. 반장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았던 내 초등학교 5학년의 봄날. 등교 준비를 하던 내게 어머니가 다가와 보따리 하나를 건네주었다.

“이거 깨질 염려가 있으니 조심히 들고 가라. 엄마가 담임선생님 뵙고 직접 드리고 싶지만 엄마는 지금 출근해야 하고 또 오후에는 병원에도 가야 하니 네가 잘 챙겨서 가져라. 너 반장 하고 싶으면 탄소리하지 말고 엄마 말대로 해. 이거 외할아버지가 새벽부터 챙겨준 거야, 알겠니?”

어머니가 내 손에 건네준 것은 ‘토종꿀’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있는 향아리였다. 당시의 내 어머니는 치맛바람이 있었고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시던 분이였다. 어머니는 당신의 아들을 반장으로 만들기 위해 소중하게 간직했던 꿀단지를 꺼내 놓으신 거다.

꿀단지를 건네받은 담임선생님은 잠시 고민에 잠기시더니 “이건 선생님이 받지 않는 게 좋겠구나. 선생님은 꿀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이거 도로 가져가고 어머님께는 마음만 감사히 받겠다고 말씀드리렴. ○○아, 너는 지금 학교생활 잘하고 있고 학업성적도 우수하고 늘 성실한 학생으로 평가받고 있어. 특히, 종례 후 술선수범으로 청소하는 네 모습을 보고서는 선생님이 많이 반했단다. 너도 이제 클 만큼 컸으니 선생님의 말을 잘 알아들으리라 믿는다. 어머님께서 반장선거를 염두에 두고 이걸 보낸 건지는 모르겠지만 너는 지금까지의 행동으로 볼 때 정정당당하게 겨뤄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거야. 선생님은 그 누구의 편도 아니란다. 선생님은 우리 반 학생들 모두의 편이고 모두를 사랑하거든. 가장 공정한 게 가장 행복한 길이고, 반칙 없이 사는 게 가장 현명한 삶의 자세거든.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이런 꿀이 없어도 이루지 못할 일은 없어. 선생님 말 알아듣겠니?”

그 당시는 부모가 자녀의 담임선생님을 찾아가 흰 봉투를 건네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의 행동이 유별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아니 오히려 꿀단지가 흰 봉투보다 더 초라하게 여겨졌다.

‘다른 애들 엄마는 다 흰 봉투 드리던데 우리 엄마는 창피하게 꿀단지가 뭐야 꿀단지가.’ 이런 생각도 했으니 말이다.

며칠 후에 치러진 학급 반장선거에서 나는 오십여 표 중 삼십 표 이상의 유효표를 획득하여 반장에 당선되었고, 그날 우리 가족은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멋진 외식을 할 수 있었다.

그 시절 내가 처음으로 맛보았던 행복이었고 기쁨이었다. ‘꿈’은 ‘꿀’을 통해서는 절대 이뤄낼 수 없다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다음 날 선생님은 내게 다가와 말씀하셨다.

“○○아, 봐라. 꿀을 가지니 되잖니.”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가요?

내 초등학교 시절의 꿀과 퇴직한 소방 선배의 꿀은 어떻게 같으며 또 어떻게 다를까.

우리는 달콤한 신혼생활을 허니문이라 칭하기도 한다. 이처럼 꿀은 그 자체로 매우 달콤하면서 또한 행복을 상징하는 물질이다. 하지만, 꿀을 이용하여 신분 상승을 노리거나 권력을 지향한다면 그건 옳지 못한 행동일 것이다. 꿀을 이용하여 옳지 않은 방법으로 성공의 문을 두드릴 것이 아니라, 마음속 꿈을 간직한 채로 부단히 노력하여 뜻하는 바를 성취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꿀이 아니라 꿈.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꿀을 건네는 기술이 아니라 꿈을 향해 정진하는 올바른 자세일 것이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가요?



장려상

아버지의 길

공직부문 김용완

“넌 원서 쓰는데 얼마 줬어? 너한테도 돈을 줘야 써준다고 했어?”

고3 겨울, 모두들 대학 입학이라는 큰 결정을 앞두고 고민이 많을 때였다. 나는 친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 한참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만 모르고 있던 이야기였다. 대부분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써달라 이야기하면 담임선생님은 ‘성적이 모자란다. 그 학교는 이런 점에서 권할 수 없다.’ 등의 이유를 내세워 돌려보냈다. 고심 끝에 춘지를 준비해가서 다시 이야기하면 그제야 못 이기는 척 써주신다는 이야기였다. 사실 그 선생님 별명은 오래 전부터 돈○○였고 그 소문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젯, 너는 아버지께서 선생님이라 너한테는 달라고 안 했나 보지?”

친구가 말하는 순간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나 역시 내 성적으로는 안

정권이라고 할 수 없는 학교를 지원하겠다고 했음에도 선생님은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었다. 어려운 형편에 적게는 몇십 많게는 백 단위의 돈이 오가야만 내가 쓰고 싶은 학교를 쓸 수 있었다는 사실이, 그렇게 선생님이 암암리에 학생의 인생을 볼모 잡아 잇속을 챙겼다는 사실이 나에게 적잖은 충격이었다. 내가 생각해오던 교사의 참모습과 신뢰가 참담하게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다. 지난날 잠깐 품었던 어리석은 생각이 났기 때문이었다.

나의 아버지 역시 선생님이셨다. 그때만 해도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이었고, 춘지나 뇌물이 공공연하게 여겨질 때였다. 집으로 선물이나 돈을 들고 오는 사람들도 심심찮게 있었다. 공무원 아파트에서 살던 나는 그런 풍경을 자주 접할 수 있었다. 누구는 그런 돈을 받아 주식을 해서 큰돈을 벌어서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한다고 했다. 누구는 스승의 날에 받은 선물이 너무 많아 다 싣고 올 수도 없었다며 자랑을 한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조금 달랐다. 스승의 날이나 새 학기가 되면 돈을 들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정중히 거절하셨다. 한사코 거부만 할 수는 없는 관계인 경우, 꼭 그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을 돌려보내셨다.

다른 교사의 자녀들은 늘 나보다는 여유 있었고 넉넉했다. 나는 그 혼한 학원도 과외도 한번 받을 수 없었다. 다른 친구들은 위장전입, 교육청 인맥 동원 등을 이용해 좋은 학교에 입학하는데, 나는 교사 자녀치고는 넉넉지 못한 생활을 했었고 모두가 기피하는 학교로 배정되었다.

가끔은 답답하고 속상하기도 했었다. 처가댁에도 생활비를 드리고 혼자 힘으로 아들 둘을 키우며, 투병 중인 할머니 뒷바라지까지 해야 했던 아버

지에게 사실 그 돈은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었을 것이다.

‘다들 받는데……. 감사의 뜻으로 보내는 건데 저렇게 정 없이 꼭 내쳐야 하는 걸까? 그 돈이면 나도 학원에 다닐 수 있고, 아버지도 저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언젠가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다.

학교에서 돌아와 그날 저녁, 아버지께 여쭙보았다.

“아빠는 왜 촌지나 선물을 받지 않아요? 감사 인사 정도는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내게 뜻밖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버지가 한번 웃어 보이더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다.

“전혀 받지 않은 건 아니야. 20년 교직 생활에서 딱 한 번 촌지를 받은 적이 있었지.”

아버지께서 초임 시절 시골 중학교에서 근무할 때의 일이다. 한 학생의 할머니가 교무실로 찾아오셨는데, 방금 발일을 마치고 오신 듯 몸뻐바지를 입고 일 모자를 쓰셨으며 허리춤에는 전대까지 차고 계셨다고 한다. 자꾸 말썽인 자기 손녀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다며 잘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몇 번이고 반복하셨다고 했다. 그러더니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 전대 속에서 꼬깃꼬깃한 손때 묻은 오천 원짜리 한 장을 어렵게 내미시더라고.

“마음만 받겠습니다. 이것으로 손녀 맛있는 거나 사주십시오.”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자, 할머니께서는 혹시 그 돈이 적어서 안 받으시느냐고 조심스레 물으셨다 했다. 아버지는 만약 그 돈 받기를 거절하면 그 할머니에게 상처가 될 듯도 싶었다고 한다. 손녀를 걱정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받고 대신 그 돈은 그 학생에게 도움 될 곳에 직접 쓰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하셨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날 밤, 그 오천 원짜리 지폐를 보고 있자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아주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다. 할머니의 마음이 담긴 저 지폐가 단 한 장이 아닌 열 장이었더라면, 아니 백 장이었더라면.

단 한 장이기에, 그래서 ‘마음’으로 느껴졌기에 받은 것인데, 만약 그게 아니었더라면 그것은 마음일까, 아닐까?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딱 한 번이었어. 그리고 선물 혹은 뇌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지. 학부모들이 학교를 방문할 때마다 부담스러워하며 그래도 빈손으로는 가는 것은 아니지 않나, 혹시 촌지를 주지 않으면 내 아이가 차별받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지. 어쩔 땐 서로 주고받는 인정 차원의 거절하기 어려운 정도의 먹거리 같은 거, 그런 적도 많아.

그런데 한 번 집으로 그런 것들을 가져가면 점점 그게 당연해지고, 한 번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그 욕심은 바닷물과 같아 마실수록 목이 말라지는 법이야. 그 한 번이 무서운 거야. 어쩔 수 없었다는 이유로 자신을 합리화시키

고 넘어가면 처음이 어렵지 그다음에는 얼마든지 그 핑계라는 것은 만들어 지기 마련이거든. 그때 그 돈이 오천 원이 아니라 오만 원이었더라면, 오백 만 원이었더라면, 또 그걸 마음으로만 생각하여 아빠가 받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때 결심했어. 정말 마음만 받자고. 그리하더라도 거절하기 어려운 것이거든 반드시 그 값 이상 하는 것으로 돌려주자고.

백절불요(百折不撓), 백 번 꺾일지언정 휘어지지 않는다는 말인데 청렴한 자세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그 인내심을 시험 당하는 어려움도 견뎌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야. 그게 그날 이후에 아빠가 정한 양심의 기준이야.”

그날, 그렇게 말씀하셨던 아버지는 공직자로서 청렴상을 두 번이나 수상하시고 황조근정훈장까지 받으시며 퇴직하셨다. 아버지는 끝끝내 당신이 정하신 양심을 잃지 않으셨던 것이다.

시간이 흘러 나는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다. 직장 생활에서는 커다란 부패와 비리와는 마주칠 일이 많지는 않았지만 시간 외 수당, 회식비, 출장비, 업무 추진비, 물품, 성과 책정 등 소소한 유혹과 갈등의 상황은 적잖이 있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그런 것들을 부풀려 책정하거나 실제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도 청구하고 회사 물건을 자신의 집으로 가져갔다. 그런 소위 ‘작은 뺑땅’은 횡령의 축에는 끼지 않으며 그 정도는 ‘귀여운 수준’, ‘못하는 게 바보’라는 분위기가 팽배했었다.

인사철이 되면 청탁이 만연했고 성과 역시 부풀린 수치와 인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특별히 회사 내에서도 ‘청렴’을 강조하지도 않았다. ‘청탁금지법’ 이런 것은 남의 일이었다.

나는 그때마다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라 마음이 불편했다.

사실 그리 큰일은 아닌 수준이었다. 만연한 일이었고 나만 깨끗한 척하며 안 하는 것도 다른 동료들의 눈살을 받아야 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해도 불편, 안 해도 불편한 상황이 여러 번 연출되기도 했다. 나는 이러한 회사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3년 만에 회사를 나왔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되고 싶은 사람이 무엇이고 누구인지 깨달았다. 아버지 같은, 공직자가 되고 싶었다. 처음 면접 준비를 하면서 공무원의 13대 의무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무원의 의무와 덕목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게 되었다.

‘나는 왜 공무원이 되고자 하며 어떤 공무원이 되길 바라는가. 공무원의 기본 덕목은 무엇이고 나에겐 공직자의 자질이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보았다. 내가 내린 답은 ‘소명의식과 청렴 정신’이었다. 비록 내가 정약용 선생이나 이순신, 황희 선생처럼 위대한 청백리의 길을 걷지 못하더라도 공무원은 자신의 이익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봉사자,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일하는 사람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청렴을 지키는 일이 불편하고 손해를 보는 것 같더라도 작은 비리와 부패를 끊임없이 경계하고 주변이 아닌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한 초심을 잃지 않아야만 비로소 올바른 공직자가 될 수 있었다.

벌써 공무원으로 근무한 지 3년이 되어간다. 나는 그때 생각했던 초심을 잘 지키고 있을까? 일하면서 다양한 군무원과 군인들을 만났다. 어떤 분은 복무와 수당, 성과, 인사, 회계 등에 있어 부하 직원들이 힘들어할 정도로 철저하였다. 어떤 분은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생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 융통성을 가지기도 하였다.

그중 한 사무관은 가끔 전기 코드 하나도 일일이 뽑고 다니시고 퇴근 시간 10분을 남기고 출장지에서 돌아오셨다. 비상이 떨어지면 개인 연가나 권리도 포기하고 자리를 지키기도 하셨다. 남들은 휴가처럼 즐기는 의례적인 교육이나 연수도 대충하는 법이 없이 원칙과 규정을 지켰다. 모든 직원에게 친밀함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공정하게 대하시는 사무관님을 보면서 후배들은 너무 뻘뻘하다며 불평하기도 하고 했다. 그분은 이제 정년이 가까워져 오는데, 천생 공직자의 행보를 여전히 하루하루 걸으시는 모습을 보며 그런 생각이 들었다.

‘저 답답해 보이는 걸음이 길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종종 일부 공직자의 잘못이 보도되어 조직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국민들은 말한다. 공무원은 철밥통이라고, 내 세금이 아깝다고. 처음부터 길이었던 길은 없다. 누군가 한 사람의 발걸음이 그곳에 흔적을 남기고 그 뒤를 이어 다른 걸음이 이어지고, 그렇게 그곳은 길이 되는 것이다.

학창시절엔 촌지나 뇌물이 만연했지만 지금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에 이른 것처럼, 부모님의 작은 행보가 자식인 나에게 공직자가 지녀야 할 청

렴의 기준으로 이어진 것처럼, 공직자 한 명 한 명이 청렴이란 덕목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그 실천이 모인다면 국민에게 신뢰받고 인정받는 공직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믿는다.



장려상

할머니의 낡은 팔찌

일반부문 황현수

‘사각사각’

숨 막힐 듯 조용한 교실 안,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 사이에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그동안의 노력을 증명하려는 듯 연필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톡톡’

바쁘게 정답을 구하는 연필 소리 속에서 내 앞의 학생이 다급하다는 듯이 자신의 책상 왼쪽과 오른쪽 모서리를 번갈아 가면서 두드린다. 바로 뒷자리에 앉아있던 나는 그 소리를 듣고 눈을 질끈 감았다. 등과 목 뒤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우리 집은 부유한 편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식당 일을 하셨고, 할머니는

건물을 청소하는 일을 하셨다. 청소부인 할머니의 왼쪽 손목에는 항상 낡은 팔찌가 자리하고 있었고, 그 팔찌는 벗겨진 도금만큼이나 빛바랜 색을 띠고 있었다.

“할머니는 왜 그걸 계속 차고 있어? 많이 낡았잖아.”

“아이고, 내 동강아지. 이걸 할머니가 아주 아끼는 팔찌란다. 빛은 바랬어도 끼고 있으면 힘이 나, 그렇고말고.”

돌아오는 대답은 내가 이해 못 할 말뿐이었다.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 궁금한 나는 아버지께 여쭙보기로 했다.

“아빠, 할머니 팔찌 말이야. 녹슬고 낡았는데 왜 계속 차고 계셔?”

식당 문을 열기 위해 앞쪽 뜰을 빗자루로 쓱쓱 비질하던 아버지가 고개를 들며 팔찌에 얹힌 사연을 말씀해주셨다.

예전에 건물을 청소하던 할머니는 분리수거 도중 쓰레기통에서 비싸 보이는 시계 하나를 발견했다고 한다. 반짝거리는 시계 테두리와 함께 안쪽에 섬세하게 세공된 장식, 빛나는 보석도 드문드문 박혀있는, 누가 봐도 갖고 싶은 고급 시계였다. 할머니는 그 시계를 보며 생각했다.

‘이 시계를 가져다 팔면 돈이 꽤 되겠구나.’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생각이 할머니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이런 값비싼 시계를 누군가 일부러 버렸을 리가 없어. 실수로 쓰레기통 안에 있는 게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내가 주웠다고 해서 함부로 가져다 파는 게 옳은 일일까?’

한참을 고민하던 할머니는 그 건물 1층에 있던 금은방 사장님에게 그 시계를 보여주었다. 쓰레기통 안에는 종종 금은방에서 나온 포장지와 가격표가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는 혹시나 하며 금은방으로 향했던 것이다. 또한, 그런 값비싼 시계를 취급할만한 곳이 건물 안에는 금은방밖에 없었다.

할머니가 가지고 온 시계를 본 사장님은 깜짝 놀랐다고 한다. 직원의 실수로 잃어버린 줄 알았던 시계를 들고 남루한 차림의 노인 청소부가 나타났으니 말이다. 자초지종을 듣고 난 금은방 사장님은 연신 감사를 표하며 할머니에게 비싸진 않지만 작은 선물을 드렸다. 바로 그 선물이 할머니가 일을 하실 때나 쉬실 때 항상 손에 차고 계시던 팔찌였다.

어려운 집안 형편 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쓰레기통 속 비싸 보이는 시계는 할머니에게 마치 힘들게 사는 우리를 향해 내려준 행운처럼 보였을 것이다. 당연히 가져도 되는 것이라고, 이미 쓰레기통 속에 버려져 있는데 내가 가지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고. 누구보다 우리 가족들을 사랑했던 할머니에게는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런 유혹에 저항해 다시 한 번 생각했다. 누가 봐도 새것처럼 보이는 시계를 버렸을 리가 없다고, 나에겐 행운처럼 보이는 것이 잃어버린 누군가에겐 불행일 것이라고,

주인을 찾아줄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고.

할머니는 그 이후로 항상 그 팔찌를 소중하게 여기셨다. 할머니에게 있어서 그 팔찌란 단순히 비싼 시계를 주인에게 찾아주고 받은 대가가 아니었다. 그릇된 유혹과 자신의 올곧은 양심을 걸고 벌인 팽팽한 한판 승부였으며, 그 팔찌는 곤궁한 상황 속에서도 할머니의 양심이 이겼다는 승리의 증표였다. 시간이 지나 팔찌의 빛이 바래갈수록 할머니의 삶은 정신적으로 더욱 풍요로워졌으리라.

그 사연을 들은 나는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웠다. 손목에 차시던 팔찌는 마치 할머니 스스로 소중한 양심을 지켰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듯했다.

‘톡톡’

바쁘게 정답을 구하는 연필 소리 속에서 내 앞의 학생이 다급하다는 듯이 자신의 책상 왼쪽과 오른쪽 모서리를 번갈아 가면서 두드린다. 바로 뒷자리에 앉아있는 나는 그 소리를 듣고 눈을 질끈 감았다. 등과 목 뒤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그 왼쪽과 오른쪽을 두드리는 소리는 나에게 정답을 알려달라는 소리였다. 우리 학교에서 힘깨나 쓰는 부유한 집안의 자제였던 그 아이는 정답을 알려주면 내가 꿈에 그리던 휴대용 게임기를 주겠다고 말했다. 학업 성적이 곧잘 나왔지만 소심하고 조용한 성격인 탓에, 그 아이는 나라면 거절하지 못하고 거래에 응할 것이라 생각했던 모양이다.

나는 고민했다. 시험 도중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할 수 없기에 손목에 찬 아날로그시계로 시간을 확인했을 때 할머니의 팔찌가 떠올랐다. 난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떴다. 식은땀은 여전히 내 등 뒤를 적시고 있었고 나는 그 부정의 '톡톡' 소리를 무시하려 애썼다. 예전에 나의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시험이라는 것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치러지는 것이었던가? 문제의 '톡톡' 소리는 내 뜻을 알겠다는 듯이 조용히 사그라졌다. 다시 눈앞의 문제에 집중하려 연필을 쥐었다. 두근거림은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고 내 시야에 수학 문제들이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난 최선을 다해서 남은 시간 동안 시험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했다.

시험이 끝난 후 그 아이가 나에게 다가왔다. 왜 알려주지 않았냐고 따졌다. 게임기는 꿈도 꾸지 말라며 배신자라고 욕을 퍼부었다. 나는 '선생님이 우릴 계속 주시하고 계셨어. 너랑 나랑 성적은 비슷하잖아.'라는 말로 적당히 둘러대며 그 자리를 서둘러 빠져나왔다.

‘내가 잘한 일이었을까?’

집에 가는 길, 같은 물음을 몇 번이나 계속해서 되뇌었다. 말수가 적고 조용한 나였기에 더욱 겁이 났다. 그 아이가 나를 '배신자' 취급하며 나쁜 소문을 퍼뜨리면 어떡할까. 다른 아이들이 그 소문을 듣고 나를 싫어하게 되면 어떡할까. 그 누구도 몰랐을 일인데, 정말 잘한 선택이었을까?

양심을 지켰다는 당당함과 뒤흔뒤흔함이 가득 찼던 마음속에 두려움이 슬그머니 파리를 틀었다. 중학교 때는 친구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했다. 학교에서 하루 종일 같이 시간을 보내는 친구들과의 사이가 틀어지는 것은 그 당시 나에게 있어 정말 피하고 싶은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정행위를 거절했다. 게임기라는 큰 유혹이 있었음에도, 내 양심은 승리했지만 복잡한 감정들이 내 속에 뒤엉켜 나를 정신없게 했다.

그 아이가 내게 보복할 거라는 두려움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졌다. 그 아이는 나 말고도 다른 학생들에게 나에게 제안했던 것과 같은 내용의 '거래'를 하려 했다. 그와 관련된 소문이 퍼지자 친구들로부터 외면을 당했으며 결국 고등학교로 올라간 이후에는 소식을 알 수 없게 되었다. 나는 나만이 특별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기뻐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나와 같이 유혹을 뿌리치고 자신의 양심을 팔지 않는 올바른 선택을 했던 것이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 사건 이후 변한 것이 두 가지 있다.

말수가 적고 내성적인 성격이었는데 친구들과 축구나 농구도 하고 제법 잘 어울리게 되었다. 내 양심의 승리가 나에게 당당함과 자신감을 선물로 주었고 그것이 변화된 성격으로 드러난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학업 성취도가 상승한 것이다. 수학을 유달리 좋아했던 나였지만 사건이 있고 난 이후 수학 점수가 크게 올랐다. 물론 사건이 발생했던 날의 수학시험은 점수가 곤두박질치긴 했지만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 매 수학 시간마다 내가 했던 올바른 결정이 생각나 날 들뜨게 했고, 그런 벅차오

름이 내가 수학을 좀 더 열정적으로 공부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 나는 수학과 과학을 깊게 배우고 싶어 이과를 선택했고 성실히 학업을 이어나갔다. 덕분에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였고 현재는 대학원에서 연구자로서의 길을 걷고 있다.

양심이란 것은 평범한 일상에서 항상 우리들의 관심을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우고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상황에 속에서 우리의 양심은 시험에 들 수 있다. 때로는 너무나 달콤하여 자칫 자신의 모습을 잃고 그릇된 선택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그런 유혹에 빠져들 때마다 나의 왼쪽 손목을 바라보곤 한다. 그리고 상상한다. 내 손목에 채워진 할머니의 팔찌를. 그리고 중학교 시절, 시험시간에 차고 있던 손목시계를. 할머니의 가르침이 아직도 내 안에 있음을 느끼며 나는 앞으로도 나의 소중한 양심을 내 손으로 지킬 것이다. 할머니가 ‘물려주신’ 팔찌 덕에 내 손은 부정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강한 손이 되었으니까.



장려상

제도의 변화가 일으키는 청렴 문화

공직부문 | 황현웅

- 어머니의 청렴 이야기, '청렴도 창의력이 필요하다?' -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2019년 2월 22일 J중학교 강당, 어머니의 명예 퇴임식에 학생들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35년간 교편을 잡으셨던 어머니는 수많은 학생의 스승이자, 같은 공직자로서 배울 점이 많은 훌륭한 스승이셨습니다. 물론 학교라는 조직과 제가 몸담고 있는 공공기관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어머니가 말씀해주셨던 조직에 관한 에피소드, 인간관계 노하우 등은 제가 공직자로서 5년 동안 무탈하게 근무할 수 있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날 저는 선생님께서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보며 ‘세월이라는 게 생각보다 참 짧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어머니에게 있어서 35년간의 교직 생활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었을 겁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어머니가 교단에 처음으로 서셨던 1980년도는 '촌지'가 만연하던 시대였습니다. 명절이나 스승의 날은 물론 매 학기 초에는 많은 학부모가 선생님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성의'를 표시하곤 했습니다. 다행히도 어머니의 과묵은 체육이라 답임을 맡기 전까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답임을 맡게 되었을 때 학부모들이 촌지를 주려는 시도가 많이 들어와 그것을 완곡하게 거절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선생님이 촌지 받는 것이 암묵적으로 허용되던 시대였기에 '저는 이런 것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강하게 거절하면 오히려 다른 동료, 선배 교사들에게 눈치를 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머니께서 체육부장을 맡으셨을 때에는 이런 일화도 있었습니다. 체육부를 운영하다 보면 체육용품(체육복, 배구공, 배드민턴 채 등)을 구매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상급자들이 직접적으로 업체 사장에게 금품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은근하게 "어이 장 부장, 요새 X 브랜드에서 쓸 만한 골프채가 나왔다던데?"라는 식으로 어머니에게 우회적 압박을 주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러한 상황 때마다 몇 날 며칠을 잠을 뒤척이셨다고 합니다. 처음 몇 번은 알아듣지 못한 척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지만 반복되다 보면 거절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거절할 수 있는 적절한 명분이라고 하셨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정말 거절하는 데도 창의력이 필요했단다."

퇴임식 후 어머니께서 점심 식사 중 우스갯소리로 하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씁쓸한 마음이 들 뿐이었습니다.

'공직자로서 청렴하고자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창의력(?)이 필요했단다.....'

- 이들의 청렴 이야기, '난 분명 옳은 일을 한 건데.' -

저는 평생능력개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국가자격시험, 외국인고용지원, 해외 취업 및 숙련기술장려 등 기업과 근로자의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공단사업 중 국민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국가자격시험사업(기능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등)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4년 동안 자격시험부에서 실기시험위원으로 출장 나가면서 경험하고 느꼈던 점을 이 기회를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자격증 취득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수험생들은 1차 시험인 필기시험과 2차(최종)시험인 실기시험을 모두 합격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두 시험의 경중을 따지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이름부터 국가 '기술' 자격이고, '최종' 시험이라는 의미가 주는 묵직함 때문에 많은 수험자들은 실기시험을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 화룡점정은 바로 실기시험 채점입니다.

‘전기기능사’ 같은 경우는 수험자들을 최종 퇴실시키기 전 여러 가지 채점 요소 등을 일일이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수험자들을 시험장 밖에서 대기시킨 후 한 명씩 호명하여 동작 여부를 확인하고 퇴실시키곤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험이 종료된 후, 감독위원들이 특정 수험자를 채점하는 동안 다른 수험자들이 본인들의 작업대로 가서 작업을 계속할 수 있고, 이를 제지하느라 채점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채점을 할 때는 작품의 ‘동작 여부’가 채점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작품의 치수, 배열 등 전체적인 완성상태가 아무리 좋아도 작품 자체가 동작하지 않으면 불합격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누군가는 채점 결과에 바로 승복하지만, 동작이 안 되는 수험생들은 씩씩 대면서 이게 왜 작동이 안 되는지 격렬하게 항의하는 경우가 많았고 결국 나중에는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냐는 식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우리 시험위원들은 젊은 수험생들이라면 ‘아쉽지만 기회가 많다’라고 그나마 수월하게 설득했지만, 상대적으로 연세가 지긋하신 수험생들은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약 2년 전 제가 출장 갔었던 ○○시험장에서는 한 어르신께서 동작 채점 중 작동이 되지 않자, ‘나는 이번 시험에도 떨어지면 경비실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라며 대뜸 얼음이 팡팡 얼어 있는 냉커피 한 통을 가방 속에서 꺼 내시면서 무릎을 쿵 꿇고 애원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어린 시절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프고 참으로 죄송스러웠지만, 연민으로 인해 시험위원으로서 원칙을 어길 수는 없었기에

“선생님,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백번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어렵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우리들만 눈감으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계신 시험위원분들은 청렴 서약을 하시고 별개의 기관에서 정식으로 위촉되신 분들이라 만약 오늘 묵인하게 될 경우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도 당연히 자격 취소가 되시구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절을 한 날에는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듯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난 분명 옳은 일을 한 건데…….’

- 제도가 청렴을 만든다 -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 ‘제도적인 명분’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만약 청탁금지법이 어머니 초임 시절부터 시행되었더라면, 학부모의 촛지 청탁이나, 상급자의 리베이트 시도에 어머니의 창의력이 필요했을까요?

작년 3월 29일, 저의 바람이 이루어진 것인지, 우리 공단에도 청탁금지법과 같은 제도적인 명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작업형 실기시험 일부 종목에 대해 채점 과정을 공개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이제 전기기능사 같은 경우는 채점 과정 입회를 원하는 수험자들이 동시에 참관한 상태로 감독위원들과 동작 채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채점 과정을 참관한다면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수험자 입장에서선 뜻 봐달라는 시도 자체가 부담스럽고, 공단 측은 이 제도를 빌

어 좀 더 수월하게 거절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제도가 생기고 난 후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시험위원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거절은 고사하고 수험생들로부터 봐달라는 부탁 자체를 한 번도 받아보질 못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수험자 만족도 분석 결과, 75.9%에 달하는 수험생이 만족했다는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특히 여러 명의 수험자들이 채점 과정을 투명하게 참관하므로 잇을 만하면 제기되었던 감독위원과 특정 수험자 간의 유착 의혹까지 차단되었던 것입니다. 즉, 제도개선을 통해 내·외부 고객만족도와 청렴도를 한 번에 올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청렴을 단순히 금전적인 것과 한정 지어 생각합니다만 요즘 우리 시대의 ‘진정한 청렴의 의미’는 금전적인 것과 관련된 반부패는 물론, 본인의 임무 및 의무에 소홀하지 않고 충실히 하는 것까지 확장되었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은 본인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여 청렴하게 근무하려고 하는데 조직의 제도가 적합하지 않다면, 청렴이 우리 사회에 제대로 싹틀 수 있을까요? 청렴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지는 분명 중요하지만, ‘개인’은 어떻게든지 시험받게 되어 있고,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청렴은 항상 위태롭기 마련입니다.

저는 청렴이 우리 사회에 뿌리를 깊게 내리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부분과 조직문화가 개인의 노력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인사 관리 이론에서 ‘좋은 시스템에서 좋은 조직원이 나온다’라는 말이 있듯이, 청렴도

그렇습니다. ‘청렴한 제도’에서 나오는 ‘청렴한 개인’이 만드는 사회에는 부당함을 거절하는 데 ‘창의력’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청렴이 제도화되고 우리 사회에 청렴이 당연한 그 날이 오면 저는 제 미래의 퇴임식에서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하겠지요.

“너희 할머니 때는 말이야, 거절할 때도 창의력이 필요했단다. 하하!”



장려상

공짜를 버려야 내가 산다

공직부문 이용한

취업 시험에서 고배를 마시기를 수차례, 드디어 꿈만 같았던 합격 통지서가 날아들었고 그 기쁨은 무어라 표현할 수 없었다. 학창 시절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며 오매불망 취업만을 기다리고 있던 나로서는 그야말로 ‘고생 끝, 행복 시작’의 신호탄이었다. 하지만 그토록 꿈꿔온 ‘인생 2막 직장 생활’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고 특히, 생각지도 못한 공짜의 유혹에 빠져 혼란과 갈등을 거듭하였다.

신입 직원인 내게 처음 맡겨진 업무는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를 보상하는 것이었다. ‘그저 정해진 법률 절차에 따라 보상하거나 선임의 업무지시를 따르면 되겠거니’ 생각했으나, 현실은 너무나 달랐다.

도로예정지가 과수원 일대를 가로질러 횡단하는 상황, 본격적인 보상에 앞서 현장 기본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무실에서 자료를 정리하는 중이었다.

“일전에 조사해 간 단감나무 수량이 부족합니다.!” 민원전화가 올랐다.

“그럴 리가요? 경계에 가지만 걸려도 모두 헤아렸고 총 155주가 편입됩니다.!” 나의 답변은 아랑곳 않고 어르신은 집요하게 다시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하셨다.

수목 하나하나에 노끈을 묶어가며 확인한 결과는 오히려 5주를 감해야 하는 실정, 단감나무 1주의 보상단가가 25만 원이라는 감정 시세를 감안하면 무려 보상금 125만 원이 감액되어야 한다.

어르신은 자식 연배밖에 되지 않는 내게 이번에는 애걸하듯 부탁하셨다.

“없었던 일로 해 주세요. 도로 건설로 과수원이 양분되어 걱정이 태산입니다.” 하시며, 봉투 하나를 꺼내어 내 주머니에 밀어 넣으셨다. 돈일 거란 생각에 몸 둘 바를 몰랐으나 다른 한편, ‘보는 사람도 없는데 눈감아 드릴까? 공돈으로 나도 즐기고, 상부상조 아닌가?’ 웅졸한 생각이 엄습했고, 새까맣게 그을린 어르신의 주름살과 평생 농사일만 해 오신 아버지 모습까지 교차하며 갈등은 더욱 커졌다. 하지만 ‘어떻게 들어 온 직장인데’ 불철주야 책과 씨름한 날들이 떠오르며 나는 냉정을 되찾았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확인된 수량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어르신은 아무런 말씀도 못하시고 내 눈치만 살피셨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내내 어르신의 모습이 아른거려 울적함을 가눌 길 없

었으나, 생애 첫 유혹을 이겨낸 자긍심으로 마음 한쪽은 잔잔히 미소를 드러내고 있었다.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어 이번엔 고추·딸기·수박 등이 심겨진 200여 동의 대규모 하우스 단지를 보상해야 했다. 대부분의 소유자는 보상금에 대한 관심보다 반토막 난 하우스만으로는 영농이 어렵다며 전체보상을 요구하였고,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해 편입 후 남은 하우스의 유형별로 세부 보상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른 아침, 어르신 한 분이 내가 출근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셨다. 기계화 설비를 갖춘 하우스의 절반 이상이 편입되고 책정된 보상금액만 1억2천만 원에 이르는 최대 규모의 하우스 소유자였다. 어르신 역시 남은 하우스만으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전체보상을 요구하셨고, 이어서 대수롭지 않다는 듯 “고생 많습니다. 이 정도는 내게 토포입니다. 생활비에 보태 쓰세요.” 하시며 종이가방을 불쑥 내미셨다.

수북한 지폐뭉치를 본 순간, 나의 두뇌는 어느새 탐욕 어린 경우의 수를 셈하기 시작하였다. ‘수립한 보상 기준에 따르면 하우스의 절반 이상이 편입되었으니 당연히 보상 가능하다. 내 월급의 몇 배가 되는 저 돈이라면 실컷 즐길 수 있다. 때마침 사무실에는 나 혼자뿐이다. 잔여 하우스의 보상금액만 무려 1억 원인데 설마 문제가 생기겠어?’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다른 한편, ‘들통나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불안감으로 가슴은 심

히 쿵쿵거렸고, 이래선 안 된다는 양심의 불멘 목소리가 물밀듯 밀려왔다.

‘일전에도 거뜬히 이겨냈는데 초심으로 일관해야지.’

마침내, “어르신! 이 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잔여 하우스 보상 문제는 면밀히 검토해서 잘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나는 정중히 사양했다.”

며칠 후 공식적으로 서면 민원이 접수되었고, 부장님은 “하우스 규모가 너무 크므로 별도로 부장급 이상으로 구성된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상 여부를 판단하자.”고 지시하셨다. 당초 수립한 보상기준과 달리 위원회 개최결과는 ‘수용 불가’로 결정되었고, ‘후유!’ 나도 모르게 안도의 긴 한숨이 흘러나왔다.

‘만약, 당시 셈했던 경우의 수만 믿고 덤석 돈을 받았다면 지금 나는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을까? 취업의 기쁨도 잠시, 직장 파면·가정 파탄 그리고 비리자로 낙인찍혀…….’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사업 준공 이듬해, 현장을 둘러보던 중 낯익은 하우스가 눈에 띄었다. 다름 아닌 보상 불가 결정했던 바로 그 하우스로 예전보다 규모는 작지만 여전히 하우스 영농을 계속하고 있었다.

‘예산의 적정한 집행과 시설물의 효율적 활용’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기분이 바로 이런 거구나! 보람과 기쁨 그리고 감격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불혹의 나이가 될 즈음이었다. 여름휴가가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회의를 마치고 업체 직원과 저녁 식사를 함께하게 되었다.

한 잔, 두 잔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이 취기가 올랐고, 헤어질 무렵 그는 평상시 업무 관계에 고마움을 표시하며, “얼마 되지 않습니다. 휴가 잘 다녀오세요.” 하면서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알코올 기운 때문이었을까? 순간 돈일 거란 직감을 했으나 주저함도 없이 받아 버렸다. 숙소로 돌아와 취기 어린 손으로 신권 50만 원을 만지작거리며 술자리에서 오갔던 이야기들을 하나둘 돌이켜 보았다.

‘특별히 도와달라는 부탁도 없었고, 돈 봉투는 이미 내 수중에 있다. 이미 받아버린 걸 돌려줄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 설마 무슨 일 있겠어?’ 술기운을 가장한 탐욕이 강하게 일었고, 그것을 숙소 한구석 나만의 공간에 숨겨두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날 이후, 50만 원 봉투가 눈에 아른거려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고, 밤늦도록 쉽사리 잠을 청하기가 어려웠다. ‘청림을 저버리고 산다는 건 정말 어렵구나!’ 고심 끝에 돌려주기로 맘을 먹고 그를 찾았다. “지난번엔 제가 경솔했습니다. 받았던 돈 돌려 드리러 왔습니다.” 축스럽게 봉투를 건넸다.

그는 괜찮다며 극구 만류했지만 나의 고집에 못 이긴 채 “제가 오히려 결례를 범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해하며 되돌려 받았다. 돈을 준 사람, 받은 사람 모두가 부자연스럽고 황망하기 그지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 사정이 어려워 그가 퇴사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참 좋은 분이었는데 너무나 아쉬웠다. “삼겹살에 소주 한 잔 하시죠?” 나의 제의를 흔쾌히 받아주었고, 지난날 휴가비를 안주 삼아

직장인의 애환과 신세 한탄을 이어갔다. 그리고 헤어질 무렵, 어색해진 상황을 만회라도 하려는 듯 취기 어린 나의 손은 이번 식대 결제를 위한 계산서를 꼭 쥐고 있었다.

서로의 인간미에 매력을 느끼며, 요즘은 계약관계가 아닌 지인으로서 또래의 그를 만나고 있다. ‘만약 휴가비 50만 원에 양심을 팔았다면 지금의 인간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을까? 행여나 어려워진 업체 분위기에 휘말려 구설수(口舌數)에 오르내리지는 않았을까?’ 뒤늦게나마 주인을 찾아간 휴가비 명목의 돈 봉투가 새삼 고맙게 느껴졌다.

입사 20년, 그토록 갈망했던 팀장 승진의 영예가 찾아왔다. 설렘을 안고 발령지로 출근한 첫날,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창가에 난(蘭) 하나가 보였다. 누가 보냈을까? 이름 석 자가 궁금했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팀장 되니까 역시 다른걸!’ 묘한 생각에 도취되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 “팀장님! 안녕하세요? 승진 축하드립니다. 조만간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낮은 목소리의 전화벨이 울렸다. 난(蘭)을 보낸 바로 그분이었고 알고 보니 그는 공사 현장에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 사장이었다.

며칠 후 부하직원으로부터 자재 대금 청구서류에 100만 원이 담긴 봉투와 ‘팀장님! 변변치 않습니다. 직원들과 삼겹살파티 한번 하세요.’ 라는 메모장이 끼워져 있음을 보고 받았다.

나름 청렴하게 살아왔노라고 자부했던 그간의 자존감이 일시에 구겨지는 순간이었다. 즉시 은행 계좌로 반환시켰고, 아울러 “시대와 공직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하며 따끔한 일침도 전했다. 결국 그와는 피상적·상투적 대화만 나누는 냉랭한 사이가 되어버렸고, 지금은 연락마저 끊겼으나

후회는 없다. 공돈은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는 마수가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아무리 능력 있는 공직자라도 청렴하지 못하면 직장·가족·행복 모두를 잃게 된다. ‘금품·향응 받은 간 큰 공무원 징역형’, ‘금품수수 공무원 파면 정당’ 모두가 탐욕에 눈멀어 청렴을 잃은 자들의 종착지를 보여주는 토픽 기사들이다. ‘왜 청렴하게 살아야 하는지 두말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우리 모두가 뉴스 속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공짜에 눈멀지 않고 항상 청렴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공무원·공기업 입사를 준비하는 일명 ‘공시생’들이 차고 넘치는 세상이다. 공직에 몸담고 있는 우리의 일터를 그만큼 부러워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내가 더욱 청렴하게 일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아닐까?

주인을 잃은 채 저만치 시들어 버린 ‘초화’가 오늘따라 유난히 쓸쓸해 보인다. 마치 청렴하지 못해 버림받은 공직자의 말로(末路)처럼…….



입선

아버지의 “소”

공직부문 | 우갑식

우리는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을까? 이제 오십이란 나이를 앞두고 뒤돌아보니, 아버지는 인생의 엄한 스승이었다.

아버지는 목수이었다. 농한기에는 오래된 문화재를 복원하거나 절 또는 교회를 짓기 위해 멀리 일을 떠나셨고, 농번기에만 가끔 오셔서 모내기, 벼 베기 같은 굵직한 일들만 다급히 해놓으시고 다시 떠나셨다. 자연스레 가축 키우는 일, 논이나 밭에 약 치기, 잡초 제거, 팥감 구하기 등의 대부분의 시골 일들은 어머니와 우리들의 몫이었다. 어린 나이에 지게는 무척이나 무거웠고, 곡괭이나 삽으로 땅을 매일같이 파는 것 역시 힘에 겨웠다.

아침 일찍 일어나 논두렁에서 풀을 베고 있으면 아이들은 학교에 간다. 부랴부랴 집으로 향해 책가방을 들고 등갓길에 나선다. 10리나 되는 먼 길이지만 나에게는 자전거가 있었다. 큰형이 타다가 둘째 형에게 물려주고, 둘째 형은 셋째 형에게… 그렇게 일곱 번째인 나에게까지 왔다. 그리고 당연히 동생에게까지 물려주었다. 아버지는 자식 모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짐을 실을 수 있는 커다란 자전거를 사주셨던 것이다.

밭을 갈았다. 소가 쟁기를 끌고 간다. 아버지는 이라, 자라를 외치며 밭을 갈아엎는다. 산 중턱에 있는 경사진 밭이라 경운기나 장비가 들어갈 수 없어 오직 소에 의지하여 밭을 다듬고 그곳에 농작물을 심을 수 있었다. 아버지는 소를 몰며, 아주 자연스럽게 쉽게 밭을 갈고 있었다.

“아버지 저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흔쾌히 나에게 쟁기를 넘겨주셨다. 쟁기는 무척이나 무거웠고, 소가 앞으로 가자 쟁기는 땅속으로 깊이 박히고 말았다. 온 힘을 다해 위로 들기도 하고, 각도를 조절하여 간신히 앞으로 나갈 수 있었다. 한참을 가다가 뒤돌아보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고랑과 이랑이 아주 엉뚱한 곳으로 파여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고랑을 똑바로 갈 수 있나요.”

아버지께서 오히려 나에게 질문을 하셨다.

“무엇을 보았느냐?”

“예, 소꼬리를 보았습니다.”

“풋대를 세워라, 소는 먹을 풀이 있으면 그곳으로 간다. 밭에 물이 고인 곳이나 돌맹이가 있으면 그곳을 피해서 간다. 저 밭 끝에 고랑과의 일정한

거리에 돌이든, 풀이든, 나뭇가지든 그곳을 마음의 풋대로 정하고 그곳만 바라보고 소를 이끌어라.”하고 말씀하셨다.

아버지는 풋대를 보고 밭을 가신 것처럼 아버지의 인생도 정직과 성실이라는 풋대 하나만 세워놓고 그렇게 평생을 사셨다.

국가의 땅에 세금을 내고 경작하는 논이 있다. 반은 국가 땅이고 반은 우리 땅이었다. 큰비로 인해 독이 모두 휩쓸려가고 말았다. 독을 쌓고 있는데 큰 바위 하나가 독에서 빗겨져 놓여 있었다. 그냥 그 위에 독을 쌓자고 해도 아버지는 끝끝내 그 바위를 옮기셨다. 어린 나이에 융통성이 없다고 구시렁 거렸다. 독이 조금 비틀어지면 어떻고, 바위가 툭 튀어나와 있으면 얼마나 보기 싫다고…….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물의 흐름을 보아라. 물이 이 바위에 부딪히면 어디로 방향을 잡겠느냐? 반대편 독으로 향하게 되어 그 독이 무너진다. 바위를 옮기고 나니 어떠하냐? 물은 자연스레 우리 쪽 독을 타고 흐르지 않느냐?”

그렇게 쌓은 독은 20년이 지나도록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잘 버텼고, 이제는 하천 정비 사업으로 시멘트 블록이 만들어졌다.

아버지께서는 정직과 성실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눈은 게으르다. 하지만 손은 부지런하여서 하기 싫어도 시작만 하면 그 일은 할 만하며, 잘되게 되어 있다. 눈으로 보고 머리에서는 ‘힘들 것 같다. 못하겠다. 왜 저것을 내가 해야 하지?’ 고민하게 되지만, 그런 생각 없이 손이 움직이면 일이 되어가고, 그것을 눈이 보면 머리도 인정하여 자연스레 그 일은 더 잘 되어가게 된다. 게으르면 먹지도 말아야 한다. 게으르면 일은 하기 싫어하고 공짜는 좋아하는 법이다. 무엇인가를 편하게만 얻으려고 하니 부정, 부패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었다. 여름에 열심히 벼를 심고, 잡초도 제거하고, 살충제도 뿌려 정성껏 가꾼 곡식의 열매를 거두는 계절이자 농부의 희망과 기쁨이 공존하는 순간이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논 가장자리에 위치한 벼의 키가 몹시 작고, 쪽정이가 가득 달려있었다. 같은 논에, 같은 날, 같은 모종을 같은 방식으로 같은 사람이 심었는데 어찌하여 어떤 벼는 알곡이 주렁주렁 달려있고, 어떤 벼는 쪽정이가 빼곡히 달려 있는 것일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질문을 하셨다.

“왜 그런지 아느냐?”

나는 옷을 걷어붙이고 논 가장자리로 향했다. 발이 차가워져 오는 것을 느꼈다. 아주 작은 물줄기가 뽀글뽀글 솟고 있었다. 그 물은 매우 차가웠고, 적은 양이지만 계속 나오니 그 주변에 있는 벼들이 죽거나 쪽정이만 달리게 된 것이었다. 찬물이 논 밖으로 흐르도록 작은 고랑을 내고서야 그다음 해

에는 알곡을 거둘 수 있었다.

“너희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떤 생활 속에서 찬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 사람으로 인해 그 조직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 댐의 작은 구멍 하나가 그 댐을 붕괴시키듯이 공무원의 작은 부패는 나라를 망들게 한다.”

벌써 군무원이 된 지도 26년이 지났다.

근무하고 있는 부대의 장비가 도입한 지 20년이 넘어, 앞으로 정밀도 보장을 위해 외주를 통하여 완전 정비를 해야 한다. 1년에 2~3대의 장비가 정비를 나갔을 때 감독관으로 나간 적이 있었는데, 출장 신고를 하면 단장님께서 부정부패 방지, 청렴, 철저한 감독 등 여러 가지 내용으로 교육을 해주셨다.

단장님께서서는 반드시 일회용 커피 몇 개를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셨다. 온종일 분해된 장비를 점검하고, 제대로 정비를 하는지 감독하는데 커피 한잔도 먹지 않겠다는 우리들의 모습에 업체의 사장과 직원들은 여러 가지 말들을 한다. “정이 없다. 너무한다. 사람 사는 맛이 없다. 이진 아니다……. 커피 한잔이 뭐라고.” 내가 듣고 있어도 이진 아니다 싶었다.

“저어 커피를 안 좋아해서…. 저도 호주머니에 커피가 있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부대 보고를 위해 가야 한다며 자리를 떠났고, 점심시간이 끝나면 다시 회사로 가서 감독관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런 우리 감독관

들을 보고 대충 정비해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철저하게 규정을 지켜 정품 부품을 교환하고 절차를 준수하여 정비하는 것을 보았다.

사실 업체는 이익을 남겨야 하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의 중요치 않은 부품은 재생품이나 기존 부품을 세척하여 몰래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 감독관들의 완고한 모습에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접고, 정석대로 정비하였다고 한다.

나는 늘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며 일을 한다.

아버지의 ‘소’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아버지께서는 밭을 잘 갈기 위해 쫓대를 세웠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곳을 향해 나아갔다. 하지만 소는 그 쫓대를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 한다. 소의 눈에는 주변의 맛있는 풀만 보일 뿐이다. 소가 그 풀에 대한 유혹을 이기게 하려고 새벽 일찍 밭 가에 소를 풀어 주어 마음껏 풀을 먹도록 했던 것이다. 밭을 가는 동안 풀이 생각나지 않도록 말이다. 물이 고인 곳은 흙으로 메워주었고, 돌맹이는 치워 놓았다.

우리는 검사를 하는 동안 친절하게 정성을 다하였다. 정비에 도움이 되도록 장비의 상태, 문제점, 세부 기능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호주머니의 커피는 의지의 표현이었고, 정직이라는 쫓대였다.

그리고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 4차 산업혁명의 시작으로 공장자동화 도움을 받기 위해 모 업체에 벤치마킹을 갔다. 그곳에서 나의 이름을 부르며, 침이 마르도록 사장에게 나를 자랑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분은 외주 정

비를 보냈던 그곳의 간부였는데, 이곳 간부로 오게 되었다고 한다.

“그때 장비 정비가 잘되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약속해 주었다. 정직하게 행함은 신뢰를 얻는다. 호주머니에 일회용 커피를 생각하며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대접받았다.

아버지의 ‘소’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다. 소를 키울 때 겨울이면 춥지 않도록 바람이 들어가는 곳은 모두 비닐로 막아 준다. 겨울이 되기 전 마구간의 배설물과 거름을 깨끗이 치우고, 새로운 지푸라기를 잔뜩 넣어 준다. 소가 송아지를 낳을 때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온몸으로 송아지를 감싸 받아 주고,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서 깨끗하게 닦아 준다. 그리고 춥지 않도록 따뜻한 이불을 덮어준다. 어미 소는 물끄러미 바라보지만, 짐승이라 할지라도 자기 새끼를 돌봐주는 주인에게 고마움을 가졌을 것이다. 공무원은 국민을 대할 때 빈부귀천을 따지지 말고 모두에게 그러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하셨다.

아버지는 대목(목수의 높임말)으로서 인정받아 인간문화재 추천도 몇 번 받으셨지만 끝내 시험에 응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아버지의 손을 통해 복원된 문화재들은 오래도록 후손들에게 남아있을 것이다.

아버지는 슬하에 8명의 자녀를 낳으셨고, 5명의 자녀가 공무원이 되었다. 자연스레 자녀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청렴하고 성실하게 공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명의 자녀를 둔 지금에도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은 나의 아버지이다.



입선

정의로운 한판승

일반부문 김광일

이 이야기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는 큰 형이 나에게 털어놓은 이야기이다. 형은 처음 6개월은 그 회사의 비정규직원이었고 그 이후엔 정규직원이 되었는데, 사건은 형이 이곳에 정식 채용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났다.

그날 형은 이사에게 보고할 문서를 손보고 퇴근 채비를 했다. 퇴근 후엔 한동안 못 다닌 유도 학원에 갈 것이었다. 그때 최 팀장이 형의 뒤통수에 비꼬는 말을 툭 던졌다.

“김 대리. 정규직 되고 나니 간딩이가 부었어. 술을 통 안 사네.”

깎보는 말투다. 형보다 한 살 어린 팀장. 하지만 직속 상관이다. 비정규직 때는 어쩔 수 없이 고분고분하게 대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형은 대꾸하지

않고 가방을 들고 문 앞에 섰다. 팀장이 다가와서는 형의 손목을 거칠게 잡았다.

“이봐. 술 한잔 사라고. 월급 받았잖아. 일 못하면 술값이라도 해야지.”

순간 형의 눈빛은 이글거리고 심장 박동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빠르게 뛰었다.

“이러지는 맙시다.”

팀장은 여전히 능글능글한 웃음을 지으며 형의 손목을 쥐었다. 형은 팀장을 노려보았다.

“제가 팀장님 비위 맞추느라 얼마를 쓴 줄 압니까? 자그마치 800만 원입니다. 800만 원 하고 6,900원이에요. 제가 회사에 돈 벌러 왔지, 팀장님 술 시중하러 왔습니까?” 형의 음성은 떨렸다. 최 팀장은 콧방귀를 끼며 빈정댔다.

“이제 막 정규직 달았다고 보이는 게 없지?”

최 팀장은 한 손을 올리며 때리는 시늉을 하려다 형의 분노에 찬 눈과 마주치자 손을 내렸다.

“저 오늘부터 술 안 마십니다. 팀장님과요. 회사 관두는 한이 있더라도 팀장님과 절대, 절대로 안 마십니다!”

형은 문을 ‘쾅’ 소리가 나게 닫고 나갔다. 그걸로는 분이 사그라지지 않았고, 운전을 하면서도 손이 덜덜 떨렸다. 처음 6개월 동안 있었던 일이 머릿속에 빠르게 흘러갔다.

처음엔 최 팀장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다. 처음 입사했을 때 직무를 잘 몰랐던 형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으며, 다른 부서 직원들이나 같은 설비팀 직원까지도 일 못하면 그만두는 게 회사에 좋다며 면전에 대고 핀잔을 줬다.

황 반장이 제일 심했다. 황 반장은 형보다 아랫사람이지만, 형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형에게 반말을 했고 막말로 서슴지 않았다. 그때 최 팀장이 형의 편을 들어주었다. 그때는 좋은 상사였다. 본색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말이다.

형이 첫 달 월급 받은 직후였다. 최 팀장은 콧노래를 부르면서, 형에게 다가왔다.

“김 대리. 벌써 회사 들어온 지 한 달 됐네. 이제 일 할만 하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팀장님 덕분에 버티긴 버티네요.”

형은 가벼운 한숨을 쉬면서도 최대한 밝게 웃어 보였다. 그때, 최 팀장이 가까이 다가와 형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능글맞게 말했다.

“오늘 술 한잔 어때?”

“네. 좋습니다.”

형은 술자리가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최 팀장은 형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일찍이 결혼해서 자녀가 있다. 형은 최 팀장이 가정적인 남자일 거라고 넘겨짚었다. 하지만 최 팀장이 형을 데려간 곳은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이었다. 술값 계산도 형에게 떠넘겼다.

그날 형이 쓴 술값은 60만 5천 원. 형은 그날까지 그만한 돈을 한 번에 써본 적이 없었다. 돈을 벌 때에도 점심은 도시락을 싸서 다녔고, 옷도 인터넷에서 5천 원이 넘으면 사기를 주저하는 형이다. 술자리는 가시방석이었다. 돈 나갈 생각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했다. 테이블 위로 양주가 나오고 비싼 안주들이 차례로 들어올 때 형은 오만가지 생각을 했다.

‘저 양주 한 병이면 한 달 반찬 값은 될 텐데.’

‘저 안주면 한 달 월세를 낼 텐데.’

‘이 돈으로 어머니 옷을 사드리면 효자라고 칭찬이라도 받을 텐데.’

형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 조금이라도 돈을 아끼고 싶었다. 술에 취한 최 팀장을 부축하며 밖으로 나왔을 때,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팀장은 강제로 형을 불렀다. 형이 술자리를 거절하면, 최 팀장은 다음날 나쁜 상사가 뭔지 보여줬다. 형은 직장에서 버티기 위해 술을 샀다. 통장 잔고가 허락하는 한도까지만 말이다. 형이 최 팀장에

게 술을 일주일에 두 번을 사주면, 다음 두 번은 거절해야 했다. 그런 식으로 형은 6개월을 버텼고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그 후, 형은 최 팀장과의 술자리를 끊었다.

최 팀장과 대판 싸운 후, 팀장도 더이상은 술 시중을 요구하지 않았다. 다만, 괴롭힘이 노골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잘못 되면 무조건 형의 탓으로 돌렸다. 팀장의 이러한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한참 직급이 낮은 조장도 형을 무시했는데, 어떤 일을 지시하면 무례하게 입술을 삐죽이며,

“그렇게 일을 잘 알면, 김 대리님이 직접 하시죠.”하고는 다른 곳으로 가 버리기 일쑤였다. 다른 사람 같았다면, 계속 반복되는 이런 상황에 부하 직원과 주먹다짐을 하거나 못해도 먹살잡이는 몇 번 했을 것이다.

형은 달랐다. 형은 화를 내는 대신 사색에 잠겼다. 내가 물었다. 그런 상황에서 화가 안 나냐고. 형이 말했다. 다 돈 벌려고 일하는 건데, 회사일 때문에 직장인끼리 감정 상할 필요 없다고 말이다. 그렇게 말했지만, 형은 회사 일에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매달렸다.

그 무렵 형은 무언가에 골몰했다. 식사 중에도, 10평짜리 조그만 숙소로 돌아와 불을 끄고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도 형은 어떤 생각에 매달렸다. 형의 손에는 신축 공장 전기 도면이 있었다. 일주일이 지나, 형은 신축공장을 총괄하는 이사를 만나러 갔다. 이사는 겸손한 사람이었다. 자신보다 20년이나 어린 신입 직원의 말을 귀담아들었다. 이것은 서로에게 좋은 일이었

다. 형의 이야기를 들은 이사의 얼굴에는 그윽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이사는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형을 칭찬했다.

얼마 뒤, 조회 시간. 이사가 공장 직원들을 모아 놓고 회의를 하다가 갑자기 형의 이름을 불렀다. 사람들은 일제히 형을 바라보았다.

“모두 김 대리에게 손뼉 칩시다. 김 대리 아이디어로 매달 전기료를 300만 원 이상 절감하였어요. 김 대리처럼 좋은 의견 있으면 언제든지 건의하세요.”

사람들은 일제히 손뼉을 쳤다. 그 와중에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라는 사람, 조용히 박수를 치는 사람, 부러움과 시기심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었다. 황 반장은 놀라는 편이었다. 그는 30년 넘게 기름밥을 먹었지만, 평생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한 적이 없었고, 자신과 다른 형을 대견하게 생각했다. 그날 조회가 끝나고 황 반장이 형을 불렀다. 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한 손으로는 머리를 긁적이며 반대편 손을 내밀었다.

“김 대리. 내가 그동안 막말해서 속상했지? 진짜 진짜 미안하데이.”

황 반장의 손은 굳은살이 많아 거칠었다. 오랜 시간과 경험이 화석처럼 단단히 굳은 훈장이었다. 형은 그 손을 덥석 붙잡았다. 황 반장의 따뜻한 온기가 형의 마음에도 전해지며 그동안 맺혔던 마음의 응어리가 스르르 풀렸다.

“이건 김 대리를 믿어서 하는 이야긴데, 우리 최 팀장 있잖아. 그 친구 행동이 요즘 수상해.”

황 반장은 잠시 후, 형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다. 최 팀장이 최근 공장의 오래된 기계를 폐기 처리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 기계는 10년은 더 사용이 가능하며, 최 팀장이 그 제품을 경쟁사에 중고로 팔려고 한다는 것이다. 새 기계를 사려면 구매 비용이 3억이나 드는데, 단돈 3000만 원에 팔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황 반장이 형의 안색을 살피며, 조심스레 물었다.

“어떻게 할 수 있겠나?”

형은 고개를 가만히 끄덕였다.

그날 점심시간 때, 형은 공장 담당 이사를 찾아갔다. 그로부터 몇 시간 뒤, 최 팀장이 형이 일하는 곳으로 씩씩대며 걸어와서는 다짜고짜 형의 멱살을 잡았다.

“네가 지금 내 뒤통수를 쳐? 이 새끼가 오냐오냐하니까 보이는 게 없나 보네.”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는데요? 기계가 아직 멀쩡해서 이사님께 계속 쓰겠다고 말씀드린 건데 뭐가 문제인데요?”

멱살을 잡고 있는 두 손을 풀어내자 최 팀장이 형의 뺨을 내려쳤다. 형은

얼얼한 뺨을 한 손으로 감쌌다. 그의 왼손이 연달아 날아왔다. 이번엔 형이 가만히 맞고 있지만은 않았다. 형은 날아오는 손을 양손으로 감싼 뒤 뒤돌아서 한쪽 발로 그의 다리를 걸었다. 그의 몸이 중심을 잃었다. 곧바로 형은 등으로 그의 몸을 들어 올려 반대편으로 집어던졌다. 형의 기술에는 조금의 군더더기도 없었다. 팀장의 몸통이는 잠시 비행한 뒤 바닥에 곤두박질쳤다. 단단한 시멘트 바닥이 그의 가녀린 등쪽과 엉덩이에 엄청난 충격을 가했다. 그는 충격으로 일어나지 못했다.

형은 미안한 마음이 들어 팀장을 부축해주었다. 그는 형을 의지해 일어나다가 갑자기 오른발로 형을 걷어찼다. 형은 날아오는 그의 발을 피하지 않았다. 손으로 팀장의 발을 붙잡고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올렸다. 그 상태로 형은 팀장을 몇 미터 밀고 간 뒤, 나무 격벽으로 내동댕이쳤다. 나무 격벽이 쿵 하고 무너졌다. 그 너머를 사무실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뛰어나왔다. 팀장은 눈만 깜빡거리고 무너진 나무 벽 위에 떡 반죽처럼 퍼져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 사건은 공장 사람들에게 좋은 교훈을 주었다. 그 이후로 회사에서 형을 비웃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입선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일반부문 | 김영주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고등학생 시절 선생님께서 내게 물어보셨던 질문이다.

과연 나의 꿈은 무엇일까? 나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하나? 수백 번, 수천 번 고민을 하다가 생각난 꿈, 소방공무원. 그중에서도 119 구급대원.

국민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직업,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직업,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고 응급 처치를 하여 병원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직업이 바로 소방공무원 중 구급대원이기에 나는 그 직업을 선택하였고, 최고의 구급대원이 되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응급구조학과에 입학 후 배움을 통하여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땀으며, 군대를 의무병으로 다녀와 병원 응급실에 취업하여 구급대원으로서 환자를 처치하는 술기를 배우고 익혔다. 그리하여 나는 대한민국 구급 대원이 될 수 있었다.

나는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수 있고, 아픈 사람을 처치해줄 수 있고, 죽음의 문턱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사람을 심폐소생술이라는 술기를 통해 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구급대원으로서의 첫걸음을 떼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꿈은 현실과는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루에 20건이 넘는 구급 출동에 나의 체력은 고갈되었고, 그 출동의 대다수는 단순주취자, 행려자 등의 비응급환자였으며 나는 의도치 않은 언어폭력과 폭행을 당하기 일쑤였다.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려고 이 직업을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말을 하지는 못할지언정 마치 아랫사람을 부리듯이 나를 대하는 환자나 보호자를 만날 때에는 감정적으로 대처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하지만 구급 대원은 참고 또 참아야 하는 직업이 아니던가.

하루는 내가 근무하고 있는 119안전센터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8층에서 신고가 들어왔다. 아들이 포도를 먹다가 쓰러졌다는 어머니의 신고 내용이였다. 심정지 상황임을 즉시 파악한 나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3분 만에 아파트 입구에 도착하였다.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20층에 서 있기에 나는 운전원에게 들것을 가지고 올 것을 부탁하고, 제세동기와 응급 처치 가방을 들고 8층까지 뛰어 올라갔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황급히 현장에 도착해보니, 40대 남성이 쓰러져 있었으며 옆에는 먹다 남은 포도송이가 널브러져 있었다. 신속하게 제세동기를 연결하였더니 그는 심정지 상태였으며 나는 심폐소생술 및 전기충격을 가하였다.

그러다 입안에 포도송이가 나오는 것을 보고 즉시 포도송이를 제거한 후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여 실시했다. 심장 리듬은 돌아왔고, 조금씩 자발적 호

흡을 하기 시작하여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해 주었다. 그 후, 나는 환자가 정상적으로 일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보호자에게 전화를 하고 집으로 방문하였다. 환자의 상태가 너무도 궁금했기에 환자분 회복되었냐고 물었더니, 그에 대한 대답은 흰색 돈 봉투 그리고 나에게 대한 원망이었다.

환자는 살아있고 의식도 되찾았으나 아파트가 바로 소방서 바로 옆이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죽을 뻔하지 않았냐며 원망을 쏟아놓았다. 또, 다행히 결과가 좋아서 참는데 만약 잘못되었으면 당신에게 책임을 물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 보호자는 당신이 여기 찾아온 것이 목숨값을 받기 위함이 아니냐면서 돈 봉투 가지고 나가라고 나를 밀어붙였다. 나는 아드님의 상태가 궁금해서 방문한 것이지 대가를 바라고 온 것이 아니라고 돈 봉투를 정중히 돌려드리고 현관문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순간 세상이 캄캄해졌고 나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과연 나는 이러한 원망과 목숨값을 받으려고 구급대원이라는 직업을 택했나? 나는 최선을 다해 한 생명을 살리려 노력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원망과 돈 봉투뿐이라니,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을까?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나는 이 직업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게 되었다. 투철한 직업의식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을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이런 나날을 보내던 중 나를 반성하게 만든 하나의 사건이 있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출근 후 장비를 점검했고 비응급환자 2명을 이송한 뒤 센터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새벽 2시. 구급 출동벨이 울렸다.

“구급 출동, 구급 출동, ○○동 ○○아파트 ○동 ○○○호. 남편이 자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함. 심정지 추정.”

재빨리 차량에 탑승한 뒤, 신고자에게 전화를 걸어 심폐소생술을 지도하며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했다. 제세동기와 장비를 챙겨 현장을 살펴보니, 키가 180cm, 몸무게 100kg이 넘는 남편이 소파 옆에 쓰러져 있었고 아내는 엉엉 울면서 남편 좀 살려달라며 애원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거실 한가운데로 환자를 옮기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환자가 거구이다 보니 아무리 세게 압박을 하여도 흉곽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 심장에 적절한 압력을 가할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7~8살 정도 되어 보이는 환자의 아들이 눈에 들어왔다. 아이는 겁에 질린 채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이 환자를 꼭 살려내자! 저 아이가 아빠와 함께할 수 있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아이에게 “방에 들어가서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으면 아빠 금방 일어나실 거야.”라고 이야기한 후, 젓 먹던 힘까지 쫓개내어 압박을 실시하였더니 심장에 적절한 압력이 가해진다는 느낌이 들었으며, 이내 심장이 스스로 박동하였고 환자도 스스로 숨을 쉬게 되었다.

신속히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고 응급실 문을 나서는데 나의 몸과 얼굴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그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그 일이 있고 열흘이 지났을 즈음. 평소와 다름없이 출동 준비를 하고 있는데 차량 한 대가 센터 주차장으로 들어왔다. 그 차에서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부부와 한 아이가 내렸는데, 자세히 보았더니 심정지를 겪었던 남편과 신고를 했던 아내, 그리고 겁에 질려 있던 아이였다.

남편은 그날 바로 의식을 회복하여 '자동 인공 심박 조율기'라는 심장을 보조해주는 장치를 넣는 수술을 했다고 한다. 회복속도가 빨라 열흘 만에 퇴원할 수 있었으며, 퇴원하자마자 집에도 가지 않고 소방서부터 찾아왔다고 했다. 정말 감사하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나며, 뭐 필요하신 거 없냐고 물으셨다.

나는 선생님이 이 세상에 살아주신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며, 어떠한 사례도 받지 않겠다고 정중히 말씀을 드렸다. 그러자 부부의 눈에는 진실된 감사의 눈물이 맺혔다. 그때, 거구의 아빠 뒤에 숨어있던 아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주머니에서 초콜릿 한 개를 꺼내더니 "우리 아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엄마가 줘서 제가 먹으려던 초콜릿인데 나눠 드리는 거예요. 고맙습니다."라며 손을 내밀었다.

그래서 나는 "아빠를 살린 건 아저씨가 아니야. 아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한 네 덕분에 아빠가 살아난 것이지. 그러니 이 초콜릿은 아저씨가 먹을 것이 아니라 아빠를 살린 네가 먹어야지."라며 아이의 입에 초콜릿을 넣어주었더니 아이는 "진짜 제가 살렸어요? 내가 아빠를 살렸대!" 하면서 활짝 웃

어주었다.

이 사건 후, 나는 내가 구급대원이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을 더욱 감사하게 여기며 다시는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 굳게 다짐하였다.

또한, 나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이며 환자를 안전하게 구조하고, 응급 처치하여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자랑스러운 구급대원이라는 사실을 한 아이의 미소로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입선

양말 한 켤레의 은밀한 이야기

일반부문 | 예정옥

이 이야기는 호텔에서 룸 메이드로 일했던 1년 동안 겪은 일이다.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당장 할 수 있는 일인 호텔 룸 메이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청소 일하기는 하지만 침대와 비품들을 보기 좋게 세팅한다든가, 고객의 불만 사항이 없도록 정확하게 처리하는 등 나름 섬세한 기능이 요구되는 일이었다.

처음엔 기억해야 할 것도 많고 근무 시간 내내 끊임없이 몸을 움직여야 했기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바빠 다른 생각을 할 틈이 없었다. 또한 정해진 시간 내에 많은 일을 끝내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질문을 하거나 말을 하지 않고 눈치껏 움직이는 게 미덕인 분위기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말이 별로 없는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도 오직 느낌으로만 감지되는 부정적인 기류가 느껴졌다. 사람들이 간식을 싸와서 일을 마치고 나눠 먹는 자연스러운 상황이었고, 뭘 잘 모르는 초보자일 때는 당연히

그렇게만 보였지만 사람들에게 대해 파악이 되면서 그것이 단순한 휴식의 시간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시간에 모종의 정치적인 이야기가 오고갔다. 누가 로커에서 스케줄러에게 돈 봉투를 주는 것을 봤다든가, 아침에 일찍 와서 선물이나 간식을 준다는가 하는 예민한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렇게 돈 봉투를 주거나 스케줄러와 술자리를 가지면 다음 달 스케줄이 바뀐다는 것이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일을 많이 주거나 비교적 업무가 편한 층에 가게 되고, 사소하게는 식권이나 자기가 받은 뇌물을 나눠 준다는 식이었다. 소장도 모르는 척 하면서 앞에서는 바른말만 하지만 뒤에서는 스케줄러랑 나눠 먹는다는 말도 했다. 스케줄러가 실질적인 소장이라는 것이었다. 즉, 스케줄러의 말을 잘 안 듣거나 비협조적인 사람에게는 보복성 스케줄을 주어서 압박을 하고, 불복하는 사람은 결국 힘들어져서 그만두게 되는 식이 이곳의 암묵적인 시스템이었다.

힘겨운 적응 기간을 마치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도 한 무렵이었다. 회사에서 '턴다운'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났다. 턴다운은 2시간 늦게 출근해서 방 정비를 적게 하고, 투숙객의 방을 점검하면서 타월 등을 보충하는 세컨드 서비스를 말한다. 턴다운은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같이 일할 동료가 없다는 점과 투숙객을 응대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부담으로 지원자가 없었다. 이 일을 오래 할 생각도 아니니 나는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은 단순 호기심으로 턴다운을 지원했다. 스케줄러는 반가워하면서 “니는 잘 할 거야. 내가 스케줄 잘 줄 테니까 니는 일만 아무지게 하면 된다. 소장님도 널 좋게 보고 있으니까, 알겠제?”

그냥 회사에서 필요한 자리가 비어서 지원한 것뿐인데, 들은 소문 때문인지 스케줄러의 말이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나 말고는 신청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나와 주임 한 명, 이렇게 두 명이 턴다운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주임 대여섯 명이 돌아가며 투입됐기 때문에 나는 매일 다른 주임들과 일을 하게 되었다. 그때 또 생각지 않았던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었다. 메이드들이 하던 말보다 더 내밀하고 오래된 비리들이었다.

주임들은 평균 10년 정도 그곳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더 많은 일들을 겪었을 터. 하나의 부정적인 사례가 나오면 그와 비슷한 과거의 사례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거기에는 돈에 더해서 가장 내밀한 문제일 수 있는 성 문제까지 있어서 충격이 적지 않았다.

과거에 소장이나 과장, 부장 등 관리직 직원들과 잠자리를 한 메이드나 주임이 있었다는 소문이었다. 단순 불륜처럼 말했지만 권력형 성 문제로 보였다. 그런 일은 소위 정·재계의 권력층에서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찌 보면 가장 밑바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이곳에도 결국 돈보다 더 내밀하게는 성이 있었다. 돈과 성은 인간의 욕망 밑바닥에 있는 가장 질기고 원초적인 힘이구나 싶었다. 주임들의 그 기억들은 공적으로는 회사의 부정부패 및 비리의 산물이었고, 한 개인에게는 상처로 남아있었다.

스케줄러는 나만 보면 파이팅을 외쳤다. 또 한번은 은밀하게 다가와 어깨에 팔을 걸치고서는 나는 구석으로 끌고 갔다.

“니 스케줄 짜는 거 배워 볼래? 일찍 나오는 거 말고 다 괜찮다. 월급 말고 생기는 것도 있고, 너는 여기서 열심히만 하면 내가 계속 밀어줄 거니까 내 말만 들어라. 소장까지 바라보고 일해라. 알겠제?”

턴다운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되었으니 좀 더 있다가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빠져나왔지만 역시 찝찝했다. 스케줄러는 늘 투지로 가득 차 있었다. 그 힘을 바라보고 스케줄러와 운명을 같이하려는 메이드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였다. 그것은 아침에 간식과 선물을 주려고 서는 줄이 길어지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턴다운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 어느덧 급여일. 지금까지 받았던 급여 중 최고로 높은 급여를 받았다. 기분이 좋았다. 여느 날과 같이 방을 정비하고 있는데, 스케줄러에게서 전화가 왔다.

“니 이번 달 월급 제일 많은 거 아냐? 10년 차 선배들도 제끼고 제일 많다. 내가 신경 써서 그런 건 줄 알제? 그래, 일 잘하고.”

생각지도 못한 내용에 뭐라고 말이 나오지 않아 대충 얼버무렸다. 전화를 끊고 나니 바쁜 시간에 별다른 용건 없이 이런 전화를 한 것이 몹시 불쾌했고, 일에 집중이 되지 않았다.

그날 저녁 깊은 고민이 되었다. 이런 노골적인 전화를 받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도 그렇고, 여기서 계속 일을 하려면 스케줄러 마음에 들도록 구는 수밖에 없었다. 이왕 이렇게 된 것, 나중을 생각하지 말고 두려

움 없이 내 생각대로 행동하자고 마음을 굳혔다. 잘못되어봐야 이곳에서의 일을 그만두는 것이 전부이고, 이만한 일은 내일 당장이라도 구할 수 있다는 자신도 있었다.

그렇게 마음먹고 출근을 한 지 일주일째, ‘이게 바로 보복성 스케줄이라는 거구나.’ 선배들이 모여서 수군대던 말을 절감하게 되었다. 내 스케줄표에는 두 층으로 나누어져 있어 이동하는 일이 많은 층이나 좌식으로 된 한실 등 대부분의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곳만 집중 포진되어 있었다. 힘겨운 시간들이 지나면서 설마 했던 것들에 대한 확신이 들었다.

그때 다시 스케줄러로부터 전화가 왔다. 황당할 정도로 화가 난 목소리였다.

“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가? 내가 니한테 그렇게 신경 써서 방 잘 주고 그만큼 돈 벌게 해줬는데 이리기가? 소장님도 니한테 얼마나 신경 썼다고. 양말 한 켤레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가?”

더이상 생각할 것도 없었다. 나는 당장 소장에게 전화했다.

“메이드들이 돈 더 많이 벌고 더 편하게 일하려는 의도로 로커에서 몰래 스케줄러에게 돈 봉투를 주고, 아침이면 일찍 출근해서 간식이나 선물을 주려고 줄 서는 거 아세요? 그게 스케줄러가 노골적으로 종용하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보복성 스케줄을 주니까 사람들이 마지못해서 하는 거, 아시냐구요!”

“뭔가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그런 일 없습니다. 저는 양말 한 켤레도 받

은 적이 없습니다.”

‘양말 한 켤레’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아다니는 것을 보니 이곳에서 제일 하찮은 선물이 양말 한 켤레인 모양이었다. 같은 층에 일하는 언니에게 말했더니 삼시간에 소문이 퍼졌고, 평소에 말이 없고 진중한 분위기로 후배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선배가 나를 찾아왔다. 입술이 다 부르트고 핏기 없는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니 소장한테 그랬다며? 어떻게 할 건데?”

“끝까지 모른척하면 제주도 본사에 찾아가서 말하려고요.”

그러자 선배가 “니도 돈 벌려고 온 거잖아. 조용히 일하면 안 되겠나?”

그 선배와 대화하고 나니, 이곳의 오래된 부정부패를 바로잡고 힘들게 일하는 동료들이 보다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고 싶은 마음으로 당장 비행기 표를 끊으려고 했던 의지가 사라졌다. 의욕을 사라지게 한 것, 선배에게서 보았던 것은 <체념>이었다. <어차피 안 된다.>

당장 큰 폭동이라도 일으킬 듯하던 선배들도 모두 내 눈을 피하며 각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구조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개인들, 하지만 그들이 없는 곳에서 나 홀로 변화를 이끌어 낼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식권과 유니폼을 반납하였다. 그날 같이 일했던 주임이 족발을 사주겠다고 해서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게 됐다.

“나는 똑똑한 니가 우리를 잘살게 해줄 줄 알았다.”

세월이 느껴지는 두꺼운 눈꺼풀 아래의 깊고 작은 눈에는 눈물이 맺힌 채, 입가에는 웃음을 띤 채 장난처럼 말했다.

“제가 무슨 수로 그렇게 합니까?”

“그래. 많이 먹어라.”

주임님은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하느라 거의 드시지 않았고, 나는 다시는 안 볼 사람의 굴곡진 인생 역정을 들으면서 혼자서 2~3인분의 족발을 해치웠다. 분노와 슬픔이 변한 식욕이었다. 그게 그곳에서의 마지막이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어느 날, 길에서 호텔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 언니를 만났다. “스케줄러, 계장 됐다. 그렇게 나쁜 짓 다 하고 다녀도 회사 입장에서는 자기들 돈 벌어주는 힘 있는 사람이니까 알아도 모르는 척 눈 감고 더 해보라고 하는 거지. 니 나가고 나서 반 정도 그만뒀다. 기장에 생긴 새 호텔로 다 갔어. 그만두는 사람만 억울한 거야. 요즘 사람이 없어서 일은 힘들지만 돈은 많이 벌어. 니 연락처 좀 찍어 봐.” 다시는 안 갈 거지만 그냥 연락처를 알려줬다.

나 혼자 힘으로 안 될 것을 알고 분노의 족발을 씹으며 돌아선 지 얼마 되지 않아 반 정도의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떠났다. 스케줄러는 떠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승진했으니, 결국 우리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부정부패와 비리에 분노했던 순간들의 의미를 생각한다. 비겁하고 하찮게 보였던 각층에서의 수군거림. 자신이 낼 수 있는 만큼의 작은 소리, 또는 큰 소리로 뒤에서든 앞에서든 낸 목소리들, ‘이래도 되는가? 돈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저버려서 되는가? 먹고 사는 문제가 어디까지 중요한가?’ 청소를 하며 가빠진 호흡과 흐르는 땀방울 속에서 치솟았던 수많은 양심의 소리와 질문들.

달걀로 바위 치기같이 뻔한 결과 때문에 체념을 선택하지만, 때때로 달걀로 바위를 치는 무모한 용기가 의외의 결과를 만들기도 한다.

바위에서 깨어진 달걀 물이 흘러내린다. 그 흔적을 보고 움직인 벌레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죽지 않고 사는 것과 같은 작은 움직임을 느낀다. 미미한 듯한 우리의 분노와 작은 외침, 행동으로도 뭔가가 일어나고 변하고 흐르고 있다는 것을. 그때 비행기 표를 끊지 못했던 것, 나와 동료들, 미래의 사람들, 누군가에 대한 미안함이 숙성되어 지금, 이 글이 되었다.



입선

내가 겪은 최악의 부정 부패

일반부문 김석원

10년도 더 지난 일이다. 입사하고 4~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고, 업무에도 익숙하고 한참을 열심히 일하던 시기에 정말 드라마에서나 보았던 부정한 일이 내가 일하는 곳에서 일어났었다. 지금도 그때의 일이 종종 떠오르면서 ‘내가 왜 좀 더 빨리 알아채지 못하였을까? 내가 왜 좀 더 용기를 내지 못하였을까?’ 하는 후회가 들어서 마음 한편을 아프게 한다.

당시 디스플레이 관련 개발부서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부정을 저지른 사람은 바로 우리 부서장이었다. 개발부서에서 하는 일 중에는 각종 부자재를 검토해서 신뢰성과 품질을 확보하고, 우리 회사가 구매해서 제품에 사용해도 된다는 최종 기술 승인을 내는 업무가 있었다. 나는 별다르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부자재 업체 입장에서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우리 부서가 막강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시장이 포화된 상태에서 고객사들도 다변화되고, 원래 일본업체들이 만

들던 부자재들을 국내 업체들이 하나둘씩 만들기 시작하면서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춘추 전국 같은 시기였었다. 문제의 부서장은 삼 년 전쯤 우리 부서로 갑자기 오게 되었고, 일본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 나를 잘 알고 있었다. 국내 업체들도 잘 알고 있었다. 선·후배, 뭐 이런 관계를 이용해서 인맥이 꽤 넓은 사람이었는데 업무 능력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서 항상 누군가가 옆에 붙어서 보좌해야만 자신의 주어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실력 없는 부서장이라 다들 싫어하는 게 정상이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고과,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맘에 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부서는 금세 사분오열이 되었다. 나처럼 그런 것은 신경 쓰지 않고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으나,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리듯이, 한두 명의 사람들 때문에 점점 부서 분위기는 안 좋아졌다.

그러던 중 내가 맡은 원자재를 만드는 A라는 일본 업체, B라는 한국 업체를 통해서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 원자재는 우리 회사에서 완전히 새로운 제품을 만들면서 처음 사용하는 신규 원자재인데 시간이 여의치 않아 기술력이 있다고 알려진 A라는 업체를 먼저 선정하여, A 업체 단독으로 기술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단독 업체는 회사에서 권고하는 사항이 아니니 1년 후 한국 업체 B도 기술 승인을 받아 두 회사가 하나의 원자재를 양분하여 납품하고 있었는데, 서로 견제를 무척이나 했었다. 상대방 품질이나, 실패 사례, 영업력 등 오만 가지 잡다한 것들을 홍보곤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두 회사 담당자들이 서로 홍보는 것을 중단하고, C라

는 일본회사에 대해 시간 날 때마다 이것저것 문의를 하였는데 나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다. C라는 회사는 신규 원자재에 대한 기술이 전무하고, 애당초 A 업체를 검토할 때에 샘플을 한 번 받아봤는데 너무 조악한 수준이라 처음부터 완전히 배제했던 곳이다. 그런데 왜 그들이 이 업체를 궁금해하는지 이해가 안 되었다.

얼마 후 주 고객사에서 신규 원자재에 추가 기능을 넣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추가해 달라는 내용이 딱히 어려울 것은 없는 기능이라 나는 당연히 내가 A와 B 업체를 통해 업무를 진행할 줄 알았다.

그런데 회의 시에 부서장이 '다른 부서원이 C 업체를 통해 개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려버렸다. C 업체가 추가 기능에 대한 우수한 기술이 있고, 비교적 신규 업체라 물량을 줄 필요도 있다는 것이었다.

추가 기능은 원자재 업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한 기술이며, 신규 원자재의 원래 기능, 즉 A와 B 업체의 것이 어려운 기술인데 이는 앞뒤가 맞지 않았고 개발 부서장이 업체 물량을 걱정할 필요도 없었다. 그건 구매나 운영부서에서 고민할 일이었다.

이해가 안 되었던 나는 반론을 제기하였고, 부서장은 마지못해서 A 사와 B 사도 검토해보라고 하였다. 최종 샘플을 만들어서 고객사에 제출하던 날, 부서장이 C 업체를 맡은 담당자와 둘이서 고객사 방문을 하였는데 결과적으로는 C 업체로 결정이 났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던 것이 아무리 봐도 A와 B 업체 샘플이 C 업체보다 월등하게 좋아 보였으며, 가격도 C 업체가 제일 비쌌다.

부서장이 설명을 잘못해서 고객사에서 그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하였다. 문제는 단독 업체가 회사 내 규에 위배되니 A와 C 업체 중 최소 한곳을 재검토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A 업체도 그렇고 B 업체도 그렇고 자존심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뭐 어떻게 바뀌서 개발해 드리면 될까요?'라고 묻는데 나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겨우 구슬려서 다시 스펙을 바꿔 업무를 진행하는데 부서장이 계속 판지를 걸어 기술 승인이 자꾸 지연되었다.

그때쯤이었다. 둔하디둔한 나도 무언가 부정이 자리 잡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당장 A 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우리 부서장에게 나 몰래 뭐 밍보인 거 있냐고 물었다. 꽤 오랫동안 같이 고생하며 친분이 쌓인 사이라 몇 번 다그치자, '사실은, 절대 다른데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만 말씀드리자면' 등등 책임지기 어려운 말을 시작할 때에 흔히 하는 말들을 한참 꺼내고서는 "부서장님이 일본업체들 사이에서는 돈을 엄청 밝힌다고 소문이 자자하다. C 업체는 뭐 그렇지 않았겠느냐. 우리 회사는 거절했다."라고 얘기하였다.

B 업체는 그냥 부서장이 컨설팅 강의를 하고, 돈을 받아갔다고만 하였다. 어이가 없었다. 회사에서 금지하는 일이고, 컨설팅 내용은 우리 회사 제품 라인업과 개발 아이템, 로드맵 등이었다. 내가 볼 때는 대외비 내용이 외부로 빠져나간 것이고, 이걸로 돈까지 받았다면 해서는 안 될 짓임이 틀림없다.

고민하다가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해서 부서에 믿을 만한 선배에게 이야

기했고, 인사과 동기에게도 상황을 설명하며 이를 꼭 보고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그 선배나 인사과에서 선택한 것은 문제의 축소 및 은폐였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학교 선배인 팀장님이 뒤를 봐 주셨고, 내가 고발한 것을 부서장이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부서장 눈 밖에 나 버렸으며 꽤 오랜 기간 동안 회사 생활이 완전히 꼬여있었다.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직장 내 친한 사람들에게 얘기하였는데 ‘부서장이 이런 일을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다. 그런 사람이 회사 사택에 살고, 중고 소형차 몰고 다니겠냐고 되묻는 사람도 있었고, ‘결국 자기 인생 망칠지도 모르는 일을 설마 했겠냐?’라는 사람도 있었다.

미적지근한 회사의 대응과 자신을 비호하고 편들어 주는 사람들 덕에 용기를 얻은 것인지 부서장은 점점 더 안 좋은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다. 부서 회의비 같은 것도 사적으로 사용하고, 기타 여러 가지 비용도 횡령하기 시작했다. 이를테면 회식 후 식당 사장과 작당하여, 카드 비용을 올려서 영수증을 받아 경비 처리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고, 동일한 방법으로 물품을 사고 카드깡을 하는 방법이었다. 정말 최악이었던 것은 부서장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부서 회식을 하고, 위의 방법으로 경비를 올려 처리하는 것이었다. 매상 올리고, 공짜 술 마시고, 카드깡으로 추가 수입도 얻는 그야말로 도랑 치고 가재 잡는 일이었다.

이런 일이 반복되어도 나는 입을 굳게 닫았다. 나만이 아니라 주위의 양심 있는 사람들 모두 입 다물고 정말 친한 사람들끼리 속닥거리는 정도였지, 공론화하거나 다른 부서에 새어 나가지 않도록 알아서 쉬쉬하였다.

나는 이미 이 문제에 있어서 선과 악을 가르는 기준이 달라져 있었다. 부서장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라 편드는 사람들, 알고도 모르는 체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아무렴 어때냐, 내 돈이 축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내 앞가림만 잘하면 되고, 언젠가 밝혀질 날이 있겠지.’ 이렇게 아주 태만하게 문제를 바라보게 되었다.

그런데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 부서장은 여직원 간담회 같은 것을 만들더니 부서 여직원들만 챙겨서 따로 술자리를 만들거나 퇴근 후에 불러내거나 하는 일들이 생겨났다. 부서 막내 여직원이 늦은 밤에 나에게 전화로 부서장이 화내면서 지금 어디로 나오라고 하는데 제발 같이 가자고 부탁할 때, 나는 ‘이 부서장이 징계를 받지 않으면 갈수록 끔찍한 일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부서장은 같이 온 내가 못마땅하였지만 쫓아내지는 못했고, 그렇게 어색한 세 사람의 술자리가 되어 버렸다.

나는 비겁한 행동을 하였다. 막내 여직원을 부추겨서 인사과에 면담을 신청하게 하였다. 나는 그런 일을 보았으면서도 왜 직접 나서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해도 후회가 많이 된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몇몇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 말장난이고, 나에게 피해가 될까 봐 만들어낸 변명이고 궤변일 뿐이었다는 것을 고백한다.

그 이후, 인사과와 우리 부서 몇몇 간부들이 의견을 몇 번 주고받는 것 같더니 몇 주 뒤 감사팀에서 들이닥쳐서 부서장과 면담을 진행한 후 직책 해지 및 사실관계 확인이 시작되었다. 성희롱 사건이 아니라 예전에 내가 알고 있던 C 업체에 대한 것이었다. C 업체는 부서장에게 청탁을 하였고, 3년

동안 건네어 준 돈이 30억 원 정도였다. 원래 일본업체들은 대부분 한국에 에이전트를 끼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에이전트의 통상 비용은 매출액의 10% 정도였다. 이런 사정을 알고는 부서장이 '내가 에이전트를 할 테니 비용을 달라'고 제안을 하였고, 신생 업체이자 실력으로는 정당하게 승부하기 어려운 C 업체는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아직도 나는 모른다. 누가 그런 증거들을 모으고, 어떻게 C 업체에게 자백을 받아냈었는지.

아무튼 부서장은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회사는 이 사건이 외부로 새어나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였으므로, 경찰에 고발하지도 않았고 그가 자진 퇴사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어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 팀장 후배가 운영하는 회사로 재입사를 하였다.

곰팡이 핀 빵에서 곰팡이 핀 부분만 떼어낸다 하더라도, 그 빵은 곧 곰팡이가 다시 핀다. 그렇게 어영부영 마무리 지어버리는 바람에 남은 사람들 중에서 부서장이 한 일을 따라하는 사람이 생겨났다. 돈을 대놓고 횡령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편 가르기, 부하 사원의 정당한 기회 박탈, 막말 등등.... 여러 가지 갈등을 심하게 겪었고 마침 회사 사정도 좋지 않아 나는 결국 그 부서를 떠나게 되었다. 그 순간을 기점으로 내 인생의 향로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

부서를 옮긴 후 나는 예전처럼 밤늦게까지 일하거나 주말에 출근하거나 하지 않았다. 딱 주어진 일에만 집중하려고 노력했고, 내 삶을 회사보다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업무로 만난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기계적으로

차갑게 대하게 되었다. 세상은 동화와 다르게 정의롭고,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100% 중 20%는 무조건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 20%는 무조건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 그리고 나머지 60%는 기회 봐서, 분위기를 봐서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나는 이 말에 격하게 공감한다.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여러 가지 법안이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말 세 마리가 뇌물이나 아니냐를 가지고 고등법원과 대법원 판결이 다른 것을 보면, 아직 부정에 대한 정확한 정의조차 없는 듯하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어떨 때는 잘못, 어떨 때는 잘못이 아니라고 한다면 60%의 사람들은 적당한 기회만 주어진다면 자신의 양심의 선을 넘어 불의와 타협을 하게 될 것이다.

내 생각에는 청탁금지법은 완성형이 아닌 진행형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자기합리화를 할 수 있어서 법이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으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낮추어 버린다. 그렇게 부서장도 하나씩 잘못된 일을 한 것이다.

그때를 회상하며 나는 나에게 앞으로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물어보며, 옛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이 글을 마무리한다.



입선

양심이 곧 청렴이다

일반부문 | 정병식

저는 청렴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고의로 법을 어겨가며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1945년생 해방둥이로 태어났지만, 부모님이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서 집안일을 도맡아 하다 보니 살림 형편은 여의치가 않았고, 학교 또한 꿈도 꾸지 못하였으며, 어린 나이에 일찍부터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가난이야 버티면 그만이지만 굶주림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굶주림과 사투하며 청소년 시절을 보내던 중 서울에서 고향 선배가 태권도 도장을 하고 있다는 소리에 무작정 상경하여 도장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도장에서든 화장실 청소, 도장 바닥 청소 등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미친 듯이 생활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떻게든 먹을거리를 해결해야 했기에 눈치만 보며 남의 입맛에 맞게 처신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다가 만 20살이 되던 해에 삶의 도피처로 월남 파병을 선택했

습니다. 여기서 굶주려 죽으나 전쟁터에서 죽으나 매한가지니 차라리 남의 나라 구경이나 해보자는 심정이었습니다.

월남 파병 기간도 어떻게 어떻게 목숨을 부지하고 지내다 보니 무사히 귀국하게 되었고, 귀국 후에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하였습니다. 언젠가는 이삿짐센터 일을 하는데 새벽에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면 돈을 좀 더 주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로 새벽에 하느냐고 묻자, 더이상 묻지 말고 할 수 있는지만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일도 없는데 웬 떡이나 싶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짐을 볼도 켜지 않은 채 옮기는 것입니다. 수상하다 싶어 물어보니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불을 켤 수가 없다며 옷돈을 더 줄 테니 옮겨달라고 합니다. 돈을 더 준다니 알았다고 하고 기분 좋게 일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밤손님의 짐을 내가 도와준 격이 되었습니다. 그일로 경찰서에 불려가 반성문을 쓰고 훈방 조치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의 삶을 돌아보면 밀바탕에는 도덕이니 청렴이니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고, 오히려 굶주림이라는 원초적인 생사의 문제와 돈과 이익과 같은 것들과 가까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을 은퇴하고 늘그막에 푼돈이라도 벌어 볼 요량으로 이것저것 찾고 있었는데, 최근에 시작한 공공근로를 하면서부터는 가슴에 남다른 느낌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복지관에서 그전에 하시던 분이 급하게 일을 그만두게 되어 자리가 비었다며 내게 주어진 일이었습니다. 문○여고 후문에서 ‘스쿨존 지킴이’로서 아침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등굣길에서 차량으로부터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일을 하고, 8시 30분부터 10

시 30분까지 약 2시간가량은 학교 후문 주변과 운동장 쓰레기 줍는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손쉬운 일인데다 적당히 시간만 보내면 될 것 같아 매우 흡족했습니다.

출근 첫날, 대충 시간이나 때우자는 마음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학교 후문은 모양으로 코너가 각이 진 좁은 골목길 맞은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호등은 고사하고 횡단보도도 없거니와 중앙선도 없었습니다. 내심 불안하겠지만 나와 별 상관없는 일이거니 여겼습니다.

그런데 막상 등교 시간이 되니 차들이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차와 반대편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각이 진 후문 근처로 모여드는데 등교를 도우려고 주차한 차들 때문에 반대편 차들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자 자칫 학생들이 위험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 상황을 늙은 노인네가 경광등 하나만 들고서는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냥 학생들만 데리고 지나가는 정도로만 하고 나머지는 운전자들끼리 알아서 지나가겠거니 생각하고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혼잡한 등교 시간이 끝나고, 후문 주변과 운동장 주변의 쓰레기 줍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등굣길에서 위험천만한 상황을 몇 차례 목격해서 인지 쉬엄쉬엄하고 싶었습니다.

‘첫날이라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거야.’ 속으로 생각하며 대충 쓰레기를 줍고 학교 정원을 둘러보며 그늘에서 쉬고 있는데, 학생 한 명이 다가와 “할아버지 더운데 힘드시죠?” 하며 우유 하나를 건네주는 것입니다. 꼭 손녀딸처럼 생긴데다 착하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지금까지 일을 하면 반드시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았는데, 공공근로는 대가만큼 일을 하지 않는다는 느낌에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은 ‘스쿨존 지킴이’나 학교 주변 쓰레기 줍기를 시간 때우기 식으로 대충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은 더욱 불편해지고, 등굣길에 오가며 “수고하십니다.”라고 인사하는 손녀 같은 학생들의 인사말을 들을 때면 부끄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 눈에는 제가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였나 봅니다. 그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순수한 아이들에게 내 양심의 검은 모습이 들롱날까 봐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나의 행동과는 반대로 주어진 일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혼잡한 교통질서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운전이야 40년간 이삿짐센터를 하면서 좁은 골목이며 주차난이 심한 아파트단지에서도 용달차를 넣었다 뺐다 하는 실력이니 운전자의 생각을 쉽게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운전이 서툰 주부들에게는 안전거리 확보라든가 주차 등을 도와주고, 급한 사람들이 있어도 순차적으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줍기 시간에는 유리 조각, 못 또는 작은 쓰레기 하나라도 보이면 무조건 주웠습니다.

사실 저는 청렴이라는 고귀한 말 뜻을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양심에 거스르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뜻깊은 일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일들은 힘들어도 돈맛에 하고 양심에 어긋나

도 망설임 없이 했습니다. 어른들의 세상 속에서는 저의 행동들이 크게 드러나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세상 속에서는 그렇게 되지 못하나 봅니다. 아마도 아이들의 때 묻지 않은, 순수함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역시 문제는, 미안하지만 어른들입니다. 등갓길에서 경광봉으로 아이들을 안전하게 멈추게 하고 차들이 지나가도록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른 한 분이 불쑥 지나갑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냥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운전자도 보행자도 위험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럴 때면 저는 너무나 부끄러워집니다. 불쑥 지나가는 어른을 제가 막지 못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어른답지 못한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정의나 공정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청렴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도 높을 것입니다. 청렴에 대한 기대치는 높는데 다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스쿨존 지킴이’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아무리 경광봉이든 법이든 그 무엇으로 막아놓아도, 어른이 넘어가면 아이들은 그냥 덩달아 따라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리고 사회초년생들에게 청렴을 강조하지 말고 그 위에 있는 어른부터 모범을 보이고 행동하면 그 사회는 자연스레 청렴해 질 것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옛말이 바로 그 증표입니다.

저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청렴이라는 단어가 제게

는 어렵게 이해됩니다. 대신 청렴을 양심이라고 하면 저는 그것이 좀 더 쉽게 가슴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청렴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처럼 청렴을 양심이라 쉽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스쿨존 지킴이’를 통해 느낀 것은 바로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일을 하니, 일을 마치고 나면 뿌듯함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거리낌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몸과 마음이 더 젊어지는 느낌까지 듭니다. 저는 지금 공공근로를 통해 일하는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큰 세상, 더 넓은 세상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청렴이라는 덕목에 집착하지 마시고,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일하시면 그것이 바로 청렴한 삶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 다음 세대, 또 그다음 세대들은 저절로 청렴하고 양심이 있는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발행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발행인 | 김원영

발행일 | 2019년 12월 11일

디자인 | (주)대학내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28678)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357(수곡동)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홈페이지 www.edu.acrc.go.kr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콘텐츠 공모전 홈페이지 www.integritycontents.kr

본 수상작품집은 무단전재를 금하며, 내용의 일부를 가공하거나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시기 바랍니다.